



코스피 2106.70 (-1.63)	코스닥 727.58 (-10.39)
금리 (무기금) 0.847 (+0.005)	환율 (원-달러) 1203.40 (+0.40) (1일)



[르포]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가보니 02

# ‘라임펀드 전액배상’ 첫 결정 손실 알고도 판매, 계약취소

투자원금 98% 손실 상향서 정보 허위·부실 기재해 판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558명에 최대 1611억 반환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미 투자원금을 거의 날린 상황에서 판매에 나선 만큼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취소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최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금융감독원 정성웅 부원장보는 “라임사 측은 자산운용사의 불법 자산운용, 증권사의 과도한 TRS 레버리지 제공, 은행 및 증권 판매사의 불안전판매가 결합돼 1조6700억원에 달하는 환매 연기를 초래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라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판매사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판매연기에 따른 피해자는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다. 투자규모만 해도 1조 6700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2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라임펀드 가운데 이미 중대한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부실을 인정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

라임은 부실을 감추기 위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자산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고,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손실이 최대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A장학재단은 은행직원이 금리가 높

은 상품이 있다며 자산관리서비스 복합 점포를 통해 동일 금융지주 계열의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했고, 금투회사 직원은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펀드에 가입한 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은행직원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해줬다.

70대 주부 B씨의 경우 은행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고,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았다.

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다.

정 부원장보는 “최근 연이은 부실 사모펀드 발생으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 요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례와 같이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부원장보는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회복을 향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겸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에서 현대차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Q 르포 | ‘2020 수소모빌리티+쇼’ 가보니

# 대형 드론에 수소트럭까지 미래 수소사회 청사진 그려

11개국 85개 기업, 23개 기관 車, 충전소, 연료전지 등 전시

1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2020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엔 ‘수소’라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외국 바이어들은 연료 전지 기업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관람객들은 수소트럭, 수소차 전시엔 눈길을 떼지 못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행사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까지 진행되며 크게 세 가지 분야별 전시를 선보인다.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 제조 및 저장 등 수소 모빌리티 ▲모빌리티용, 건물용, 발전용에 쓰이는 연료전지 ▲태양열 풍력 등 신에너지 분야가 전시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방역 준수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야외에 붙여진 QR 코드를 스캔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묻는 설문조사에 답해야만 전시장 건물 안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체온을 재고 손을 소독한 후 비닐장갑을 꺼야만 수소 모빌리티 쇼 플러스 전시장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입구로 들어가자 눈에 띈 건 경영악화에 전환경 기업을 사입 재편을 선언한 두산 전시 부스였다. 외국 바이어들이 두산 퓨어셀 관계자에게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다. 흥

보자료에는 천연가스보다 수소 모델이 친환경성, 효율, 수명 등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스 뒤편에는 한번 충전으로 2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홍보하고 있었다. 대형 드론 앞에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이 몰려 설명을 들었다.

이번 모빌리티 쇼에는 11개국 85개의 기업과 23개의 정부 기관이 참여했다. 현대차·두산·효성 같은 대기업부터 한국가스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공기업 및 연구기관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행사에 문을 두드렸다.

캐나다·영국·호주·네덜란드 같은 수소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선진국도 한국기업과 교류를 위해 부스를 마련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도 팔을 걷어붙였다. 울산은 2030년까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전문 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했고 충청남도는 글로벌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수소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시장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현대차는 전시의 하이라이트였다. 대형 상용 수소트럭 ‘HDC-6넵툰’이 위용을 뽐냈다. 그 옆으로는 엔진룸과 배터리를 볼 수 있게 개조한 넥소에 관람객의 질문이 이어졌다. 수소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수소 충전소도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모형을 설치해 놓아 이해를 도왔다. <6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285@

# DB그룹 ‘2세경영’ 돌입... 김남호 회장 선임

“경제위기 속 무거운 책임감 느껴 지속성장 기업 위해 노력 할 것”

DB그룹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DB금융연구소 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2세 경영’에 돌입한다.

DB그룹은 1일 “김남호 DB금융연구소 부사장을 신임 그룹 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남호 신임 회장은 DB그룹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의 장남으로 DB손해보험과 DB Inc.의 최대 주주다.

DB손해보험은 DB생명, DB금융투자, DB캐피탈 등을, DB Inc.는 DB하이텍과 DB메탈 등을 지배하고 있다.

김남호 회장은 이날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외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김남호 DB그룹 회장.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DB를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속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각 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융합 구축과 온택트 사업역량을 강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호 신임 회장은 내년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그룹 제조 서비스 부문 지주회사 DB Inc.의 이사회 의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그는 1975년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한 뒤 1999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2007년에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데 이어 UC버클리대학교에서 파이낸스 과정을 수료했다.

그룹에는 2009년 1월 정식 입사해 동부판관 등 주요 계열사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김남호 회장은 국내외 투자금융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0년대 중반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

# “동행세일이 뭐죠?”... ‘내수진작’ 초대받지 못한 전통시장

## Q 르포 |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 가보니

상인 대부분 모르고 기대감 낮아 행사 매출신장 효과 미미할 것  
경품 외 자체마련 혜택 어려워 정부 지원·행사 등 늘어났으면 준비할 시간 부족해 아쉽지만 소비진작 위한 사업, 반길만 해

“동행세일, 그런 게 있어요? 뭔지 설명 좀 해봐요”

1일 오전 찾은 둔촌역전통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에게 동행세일에 관해 아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이 시장의 상인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매출 상승으로 동행세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그 활기가 전통시장까지 미치지 못했다.

둔촌역전통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하고 있는 김 모씨도 동행세일 관련 정부의 혜택을 알지 못했다. 이들은 동행세일이 가져올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김씨는 “차라리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사용이 좋았겠다”면서 “재난 지원금이 소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익이 나올 구멍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지난 26일부터 시작해 이번 달 12일까지 17일간 이어진다. 동행세일 첫 주말인 27일~28일 국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20%가량 올랐다.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백화점과의 분명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동행세일 기간 시장의 매출 신장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상인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기대감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혜택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남은 재고를 세일 처리하고, 온라



1일 오전 서울 성내동에 위치한 둔촌역전통시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수막이 걸려있다.



1일 서울 암사동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놓인 동행세일 이벤트 경품들.

인쇼핑몰에서는 카드 할인이나 쿠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이 개인 자영업자인 시장에서는 혜택 제공에 제한이 있다.

둔촌시장 측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 경품 추첨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익명을 요청한 시장 관계자는 “경품 외에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이 적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행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은 서울의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다. 서울 상암동 암사종합시장에서

만난 관계자 역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하면 시장은 동행세일 덕을 적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암사종합시장시장은 120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고 출입구가 6개나 되는 만큼 비교적 규모가 크고, 가격도 저렴한 곳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이 지역에선 확진자가 두드러지지 않아 시장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엔 무더위에 제로페이 사용 고객이 줄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

암사종합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선희씨는 “현수막 6개를 붙여놨

만 이곳 주민 중 동행세일을 알고 찾는 사람은 적다”며 “경품과 전단 등 행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고령의 상인들이 많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사무실 한 칸에는 밥솥 등 각종 경품과 동행세일 관련 자료들이 즐비했다.

조 씨는 “급하게 만들어진 행사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게 아쉽지만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여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삼성전자, 연내 석·박사급 인력 1000명 뽑는다

상반기 반도체 설계, AI 부문 500명  
이재용 부회장 ‘인재중시 철학’ 노력

삼성전자가 차세대 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대대적으로 채용하며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인재 중시 철학’에 따른 노력이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AI) 부문 박사급 인력을 500여명 채용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신기술 분야에서 석박사 인력 채용을 지속해, 연간 역대 최대 수준인 총 1000여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DS부문 채용 공고를 통해 ▲차세대 메모리 리더십 강화를 위한 메모리 연구개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 위한 설계 및 공정 분야 ▲반도체 생산라인 스마트공장 구현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는 이재용 부회장(오른쪽). /삼성전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AI 및 소프트웨어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 인재 영입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무역 질서 변화 ▲IT 산업 경쟁 심화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경영철학으로 미래 사업 분야의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삼성전자가 인력 충원에 발벗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인재를 중시해야 한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철학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삼성 앞으로는 성별과 학벌, 나이가 국적을 불문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셔 와야 한다”며 “인재들이 주인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일하면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해야

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세바스찬 승 사장을 삼성리서치에 소장자로 새로 영입하는 등 글로벌 핵심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요직을 맡기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왔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채용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업의 의무”라며 “소중한 아들과 딸들에게 기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8년 18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AI, 5G, 전장용 반도체 등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1만5000명을 채용하는 ‘반도체 비전 2030’을 공식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수출 4개월연속 감소

산업부, 코로나19 사태 영향 감소폭 20%→10%대 둔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4개월 연속 전년보다 감소했다. 다만, 수출감소 폭은 3개월 만에 20%대에서 10%대로 둔화됐다. 수출보다 수입 감소가 많아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6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392억13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47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36억6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수출 감소율이 3개월만에 20%대에서 10%대로 축소됐다”며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이 4~5월보다 개선됐고, 수출 물량도 3개월만에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수출액은 4월 16억5000만달러, 5월 16억2000만달러, 6월 16억7000만달러로 유지되고 있고, 수출 물량 증감률은 4월 -11.3%, 5월 -20.6%로 확대됐다가 6월 -1.9%로 크게 둔화됐다. /한용수 기자

## 중소철강회사 재도약 위해 5년간 1354억 투입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예타조사

중소 철강회사 미래 기술력 확보와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1354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2021~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354억4000만원(국비 923.9억원, 지방비 102.8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대기업 중심 범용 소재 위주의 양적 성장을 도모했던 국내 철강 산업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성장 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기획됐다. 사업에는 중앙부처인 산업부 뿐만 아니라 경북, 전남, 충남 등 철강 산업 주요 거점 지자체와 업계·연구계가 밀접하게 협력해 철강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산업공유자산으로 구성된다. 사업을 통해 기가급 강판 압연용 초내마모계 분말소재 개발 등 중소기업 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제강분진이나 슬래그 등 부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구축과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협의체 운영, 향후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될 사업운영지원

단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과제별 상세 기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사업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사업운영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2021년부터 차질없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산업부 김완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은 “최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예타 통과로 중소·중견 철강사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용수 기자 hys@

“라임보다 더 악질” 옵티머스 배상 어떻게?

# 운용사의 사기, 판매사 책임 묻기 힘들어 VS NH·옵티머스 커넥션 밝혀지면 전액 보상

라임펀드의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100%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재조정위원회 권고가 나오면서 옵티머스 투자자들도 100% 배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옵티머스펀드는 라임펀드와 상황이 조금 다르다. NH투자증권이 매출채권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기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결국 NH투자증권이 부실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지속한 증거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제29호, 제30호 가입자에게 “현재 정상적 펀드 상황이 어려워 부득이 만기 상황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환매 중단 규모 ‘눈덩이’

지난 18일 환매가 중단된 25, 26호,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 23일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7, 28호를 포함한 환매 중단 규모는 1056억원이다. 오는 16일, 21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도 있는 만

5등급 상품으로 녹취 기록 없어 불완전판매 증명할 증거 찾아야 증명해도 100% 반환 난항 전망

금 환매 중단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라임무역금융펀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100% 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가 펀드에 가입하기로 계약한 시점에 펀드의 상황 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즉, 라임자산운용은 투자 제안서에 핵심정보를 속여서 기재했고, 판매사는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속아서 펀드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제안서에 적었지만 실제 펀드 운용 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아닌 부동산 개발, 대부업체 등에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펀드는 라임과 구조



펀드 운용사인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연합뉴스

가 조금 다르다.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전환사채(CB)를 편입했고, 그 과정에서 판매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착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펀드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작성했다. NH투자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명세서를 믿고, 확인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보다 악질적인 사건이다”면서 “자산운용사가 마음먹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판매사에게 100% 책임을 묻기

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완전판매 증명 어렵다”

불완전판매를 증명하는 것도 힘들다. 옵티머스펀드는 위험등급이 5등급인 상품으로 판매 당시 녹취 의무가 없다. 일부 유선 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등 불완전판매의 의혹이 나왔지만 실제로 계약서에 싸인하는 시점에서 설명이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법무법인 측은 설명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등 관련 항목에 체크를 했다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자필로 체크를 하고 서명을 했다면 결국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전례를 볼 때 불완전판매가 인정돼도 보상규모는 낮은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100% 보상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과연 NH투자증권이 운용사의 부실 정황을 알고서도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4528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의 85.86%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증권사가 단일 운용사의 사모펀드를 몰아주기식으로 판매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30일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옵티머스대표인 김모씨, 펀드운용 이사 송모씨 등을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불법적인 펀드 운용 내용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관계 유착 의혹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간 연관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면 NH투자증권도 사기범죄의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 “다만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처럼 사전에 문제점을 인지한 채 상품을 판매를 했다면 판매사로서 100% 배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라임 영향, 디스커버리 배상 비율 높아지나?” 촉각

기업은행, 투자금 50% 선지급 투자자 계약 무효, 원금보상 요구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대한 100% 손실배상 권고를 내리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펀드도 배상비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했던 디스커버리자산운용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 부동산산순위채권펀드’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는 미국의 DLI운용사가 실제 수익률 등을 허위로 보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기업은행이 판매했던 금액은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이다. 이 가운데 914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 ◆투자자 “기업은행 DLI운용사 문제 충분히 인지…”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펀드가 불완전 판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입 당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 성향 분석 등을 진행하는 절차가 없었고, PB상품에 맞게 투자자의 성향을 조작했다는 것. 기업은행이 펀드 투자권유 준칙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펀드투자권유 준칙 8조3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뒤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 측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임직원은 투자자 정



기업은행 본점. /연합뉴스

보와 성향에 대한 분석보다 가입을 위한 자필기재를 우선 요구했다.

투자자 A씨는 “대부분은 이러한 투자성향을 분석하는 과정 없이 가입이 진행됐다”며 “가입자 대부분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상품에 맞춰 투자 성향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상품마다 투자자 성향이 다르게 기재돼 가입됐다고 주장한다. 펀드투자권유 준칙 9조 1항을 보면 임직원은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당해 연도 분석 분에 한함) ‘기본투자성향’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금번 투자자금 성격은 유효기간 없이 권유 시마다 정보를 새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가 제시한 투자정보확인서를 보면 안정추구형(5등급) 가입자가 공격투자형(1등급)에 가입돼 있거나 상품에 따라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3등급)에서 공격투자형(1등급)으로 달

라진 경우도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부터 최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기본투자성향’은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해야하고, 상품과 투자자성향이 다를 경우 권유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100% 원금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장석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장은 “이번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100% 배상결정은 판매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본 사례”라며 “기업은행도 펀드를 판매할 당시 DLI운용사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100% 원금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은행 “분조위 결과 지켜보아”

다만 기업은행 측은 지난달 이사회에

서 결의된 방안을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달 11일 이사회를 통해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가 기업은행과 개별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가지급금을 우선 받은 뒤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업은행은펀드를 판매했던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차액을 더 지급하거나, (배상비율이 낮을 경우) 투자자로부터 지급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50% 선지급은 기업은행이 고객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지급 비율 등을 수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기업은행의 선지급 대안과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지급에 이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코로나19 직격탄 ELS 발행·상환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주요증시가 폭락하면서 파생결합증권(ELS, DLS) 발행액과 상환액이 직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26.3조원으로 직전분기(42조원)보다 37.4% 감소했고, 상환액은 27.5조원으로 직전분기(44.1조원)보다 37.6% 하락했다.

특히 1분기 중 ELS 발행액은 21조원으로 전년 동기(19.8조원) 대비 6.1%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34.3조원) 대비 38.8%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 큰 폭 감소는 퇴직연금의 원금보장형 ELS 편입에 따른 발행(14.5조원)이 전년 12월 중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3월 중 코로나19로 글로벌 주요증시가 폭락하면서 원금비보장형 ELS를 중심으로 발행액이 크게 감소했다.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2020년 1월 6.8조원 ▲2월 7조원 ▲3월 3.9조원 순이다.


이번 1분기 중 ELS 상환액은 19.1조원으로 전년 동기(17.7조원) 대비 7.9% 증가했으나, 직전 분기(34.9조원) 대비 45.3% 폭락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동반 폭락해 조기상환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조기상환 규모는 ▲2020년 1월 8.4조원 ▲2월 5.9조원 ▲3월 2.3조원 순으로 감소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렘데시비르’ 국내 공급 중증환자에 우선 투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질본, 이달까지 무상공급 물량 확보  
치료비용 일인당 280만원 수준  
투약기간 5일 원칙, 필요시 연장



**코로나19 치료효과 렘데시비르**

<b>개발사</b>	길리어드사이언스 (타미플루 개발 미국 제약업체)
<b>개발 목적</b>	에볼라 치료
<b>최초 적용</b>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긴급사용승인
<b>국내 도입</b>	7월 1일 국내 공급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와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 체결)
<b>약물 효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li> <li>• 환자 회복 기간 단축</li> <li>• 사망률 감소</li> </ul>
<b>투약 환자</b>	<b>조건 4가지 충족 환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li> <li>• 산소포화도 94% 이하</li> <li>•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li> <li>•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음</li> </ul>
<b>투약 기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6병)이 원칙 (필요할 경우 5일 연장, 전체 투약기간 최대 10일)</li> </ul>

자료/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공급된다. 중증환자에 우선 투여되며, 렘데시비르 치료비용은 일인당 28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한 바 있다.

렘데시비르 우선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투여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을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기간은 5일(6병)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경우 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투약기간이 최대 10일을 넘으면 안 된다. 이번 계약의 도입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길리어드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질본은 이번 달까지 무상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el@metroseoul.co.kr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앞장

# 수소도시 조성·전문기업 1000개 육성

수소경제위원회 1차 회의  
340억 규모 수소경제 펀드 조성  
연료 등 5대 분야 소·부·장 지원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 설치

정부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2024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 또 10년 이내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기 660기를 확충하고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정부는 1일 일산 킨텍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수소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소경제위는 산업부, 기재부, 행안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다.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정의선 수소위원회 의장(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은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우선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 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의 소재·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품·장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340억원 규모 수소경제 펀드도 조성해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수소 생태계 육성 방안도 내놴다. 현재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당진, 울산 등 해안선을 따라 U자형으로 분포해있지만, 수소 관련 기업은 주로 수도권, 경상권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남, 호남, 중부, 강원 등 4대 권역별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30년에는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형화물차와 중장

거리 버스까지 보급 차종을 늘리고, 구매 보조금도 늘린다.

아울러 3기 신도시 5곳 중 2곳 안팎을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 주택 연료 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 도시에도 관련 인프라를 늘릴 예정이다.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수소가격 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 확립,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 기준 등을 제정한다. /한용수 기자 hys@

## 최종구, 체불임금 관련 전격소환

(이스타항공 대표)

현재까지 체불임금 약 250억 추정  
고용노동지청 지급명령에도 미이행



지난달 29일 이스타항공 기자회견에서 최종구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그동안 이스타항공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 해소 방식과 규모에 대해 언급을 피해오던 최종구 대표가 결국 서울 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가 2일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 사측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이스타항공 사측에 지난 9일까지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스타항공이 이 같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임금체불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최종구 대표이사에 2일 소환 조사를 응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급여의 40%만을 지급한 뒤 ‘셋다운’에 돌입하며 현재까지 무급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만 약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체불임금 관련, 내일이 최종구 대표이사 소환일이다. 내일 소환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마도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제주항공 등 다른 책임자를 언급할 것이고, 또 제주항공 관계자를 부르는 등 조사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지 사실 여부에 대해 “그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4월 9일 직원 150명의 급여 21억 6000만원에 대해 1차로 진정서를 내고, 지난 2일 148명의 급여 17억 5000만원 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속도조절 나선 與 “공수처, 법정 시한 떠나 야당과 합의”

단독 원구성 진행하며 상황 급변  
‘협치 실종’ 정치적 부담감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뜻을 밝힌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0일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법정 시한 내 출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나 후보자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후보로 선정하면 그 분이 1기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거세게 반발하며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가운데 협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많은 위험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야당 몫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다. 야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초 법안 개정으로 야당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도록 하려 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의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 대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통합당 반발에도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기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안 심의까지 이어가면서 ‘협치 실종’이라는 정치적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이어갈 경우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치 상황을 고려해 공수처 출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중 여야 이견이 있는 법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단독 드리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거대 여당 폭주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한 지붕 D-365’...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본격화

‘뉴라이프 추진위’ 화상 회의 개최  
양사, 마케팅 등 담당 임원 교차 선임  
추진위, 조직·업무 규정 통합 박차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화학적 통합이 본격화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통합보험사 출범 ‘D-365일’을 맞아 조용병 회장과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의 양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이프(NewLife) 추진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통합보험사 출범 1년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각 분야별 진척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물리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무·IT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신(新)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에 대비한 통합보험사의 자본, 손익, 지급여력 변동 규모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또 통합보험사의 핵심 인프라인 재무·IT 통합시스템 구축 진도율과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점검했다.

뉴라이프 추진위원회는 인력 교류, 조직개편을 통한 화학적 통합 작업도 본격화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양사의 고객 마케팅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2명을 각각 교차로 선임하고, 부서장급 3명을 포함한 약 40여명 규모의 인원 교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고객 중심 조직체계 ▲디지털변화(DT) 추진동력 강화 관점의 조직개편도 실시했다. 신한생명은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조직인 ‘고객전략그룹’을 신설했으며, 오렌지라이프는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한 디지털 CX실(Customer Experience)을 신설했다.

앞으로 뉴라이프 추진위원회는 조직 및 업무 규정 통합에도 박차를 가해 내년 초에는 양사의 조직 전체를 통합 보험사 기준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원펌(One Firm) 구동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 회장은 “마라톤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막판 스퍼트”라며 “내년 7월 출범하는 뉴라이프가 업계 최고수준의 자본 적정성과 톱 2수준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디지털혁신을 선도하고 고객 중심 영업 체계를 갖춘 일류(一流)보험사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양사 임원 및 부서장 교류현황〉

(신한금융그룹)

구분	성명	인사고류 前	인사고류 後
신한생명	김태환	DB마케팅그룹장 (부사장보)	오렌지라이프 고객유지트라이브장(부사장)
	원경민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상무)	오렌지라이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상무)
	허영재	GA사업팀 (팀장)	오렌지라이프 GA채널기획부(부장)
	강대윤	보험금심사팀 (팀장)	오렌지라이프 보험금심사SMC(부장)
	오준석	오렌지라이프 원신한추진팀 파견(부부장)	오렌지라이프 원신한추진팀(부장)
오렌지라이프	이기홍	고객유지트라이브장 (부사장)	신한생명 DB마케팅그룹장(부사장)
	유희창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상무)	신한생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상무)
	김병환	GA채널기획부 (부장)	신한생명 GA사업팀(팀장)
	노태경	보험금심사SMG (부장)	신한생명 보험금심사팀(팀장)
	조정성	신한생명 글로벌사업팀 파견(차장)	신한생명 글로벌사업팀(팀장)

## 신협중앙회, 취약계층 5만명에 온정 베풀다

3대 사회공헌 운동 통해 서비스 제공  
지난 5월 기준 누적기부금 200억 돌파  
다음세대 위한 ‘어부바 멘토링’ 운영

신협중앙회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 이후 3대 사회공헌 운동을 통해 약 5만 여명 이상의 취약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의 3대 사회공헌 운동은 사회적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잘살기 위한 경제 운동’,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돌보는 ‘더불어사는 윤리운동’이다.

1일 신협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누적기부금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사업 운영 결과에 따르면 인큐베이팅에 참여한 60개 창업팀 중 37개소가 법인 설립을 통해 최종 사업화에 성공하여 171명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는 침체를 겪고 있는 전



신협 임직원들이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통시장을 선정하여 시설 개선, 상인 교육, 판로지원 등 맞춤형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주 전통한지 생활화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취약가정에 친환경 한지 벽지 및 한지 장판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등 사회적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신협 어부바 멘토링’도 운영한다. 신협 임직원이 멘토가 되어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금융·경제를 주제로 멘토링을 제공한다. 4년 동안 2252명의 신협 임직원이 8600여 명의 아동에게 2500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든든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신협

동반자의 역할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어부바하겠다”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와 신협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67.2%로 감소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RBC) 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67.2%로 지난해 말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사들은 RBC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2조8000억원이 줄었다. 1분기 중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타포괄손익이 감소했다.

요구자본은 5000억원이 감소했다. 운용자산 증가로 신용·시장위험액은 늘었지만 금리역마진위험액 폐지로 금리위험액이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RBC 비율이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며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 등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와 자본확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銀, 신임 디지털금융부문장에 이상래

(전 삼성SDS 상무)

NH농협은행은 신임 디지털금융부문장(CDO·부행장)으로 이상래 전 삼성SDS 상무(사진)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신규 선임된 이상래 부행장은 1965년 생으로 대구 영진고와 경북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삼성SDS에 입사해 솔루션컨설팅팀장, 데이터분석사업팀장, 디지털마케팅 팀장 등을 지냈다.

농협은행은 외부 디지털 전문가 영입으로 디지털금융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관련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중용했다”며 “디지털금융 조직을 강화하는 만큼 디지털금융의 티핑 포인트(급변점)를 만들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안상미 기자

## 부서간 협업 강화로 민원 사전 예방

### \* KB국민카드

부서 협업 프로그램 ‘원스톱 솔루션’ 민원해결 주관부서 담당, 상시 가동

KB국민카드가 고객 민원 사전 예방과 감소를 위한 부서간 협업 프로그램 ‘원스톱 솔루션(OSS)’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빈번하게 민원이 발

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한다.

대표적으로 ▲카드발급, 이용한다 심사 업무 ▲철회향변, 회원보상 등 의제기 업무 ▲연체, 채권 관리 업무 등의 문제를 부서간 협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상시 운영팀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한다. 소비자보호부와 각 민원 해결을 위한

주관부서 담당자는 상시로 협의체를 가동한다. 여기에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생길 경우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일 “프로그램은 기존 소비자보호와 고객 민원 감축을 위해 펼쳤던 활동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기존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의 시각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 IBK기업銀, 필리와 ‘슬기로운 건강생활’

IBK기업은행이 맞춤형양제 정기구독 기업 필리(pilly)와 함께 ‘슬기로운 건강생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7월 중 간편결제 카카오페이에 기업은행 계좌를 신규 등록한 고객이다.

대상고객은 필리 정기구 할인쿠폰을 지급받는다. 건강 설문작성 시 10%, 기업은행 제휴 5%로 최대15% 할인이 적

용된다. 또 ‘IBK D-Day적금’ 가입 시 0.2%포인트(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과 우대금리 쿠폰은 매주 수요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독경제 트렌드를 반영해 개인별 맞춤 영양제 정기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삼성SDI, 브라운관부터 배터리까지 ‘혁신의 반세기’

# “초격차 기술로 새 50년을... 차차세대 배터리 준비”



삼성SDI

전영현 사장 창립 50주년 기념사  
“유연한 조직문화, 기술확보 방침  
초일류 기업으로서 시장 선도를”

삼성SDI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초격차 기술 확보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간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삼성SDI는 1일 자사의 전신인 삼성-NEC로 시작한 이후, 회사를 설립한 지 이날로 50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1970년 삼성-NEC주식회사로 출범한 뒤 시대 변화와 사업 영역의 변화에 따라 1974년 3월 삼성전관을 거쳐 1999년 12월 지금의 ‘삼성SDI’로 사명이 변경됐다. 또한 이에 맞춰 디스플레이에서 에너지·소재 사업 등 주력 사업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이뤄져 왔다.

삼성SDI는 출범 7개월만인 1970년 7월 23일 국내 최초의 진공관을 자사의



1일 삼성SDI 기흥사업장에서 진행된 창립기념식에서 전영현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삼성SDI

첫 제품으로 내걸었다. 진공관은 생산라인이 안정되고 동시에 1년 10개월만에 매월 제품 100만개 생산을 돌파했고 당해 연간 매출액이 12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트랜지스터와 IC(직접회로) 제품 등으로 인해 진공관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삼성SDI는 신규 사업 개척의 일환으로 ‘흑백 브라운관’ 시장을 택했다.

삼성SDI는 1975년 1월 국내 최초로

‘이코노 브라운관’을 개발하며 단시일 내 국내 TV시장을 석권하는 데도 성공했다. 더 나아가 1980년 컬러TV의 국내 시판이 가능해짐에 따라 컬러 브라운관 생산체제도 구축했다. 이후 2000년 삼성SDI의 컬러 브라운관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향후 삼성SDI가 평판디스플레이의 리더로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삼성SDI는 1984년 삼성전기의

LCD(액정표시기) 부문을 인수하며, 브라운관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업체로서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갔고, 1999년 삼성전자부터 모토로라, 노키아 등 글로벌 제조사까지 공급을 확대했다. 또한 LCD와 함께 VFD(형광표시관) 개발에도 성공하며, 1986년 당시 일본 업체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VFD 업체 중 세계 최초로 QS-9000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아울러 삼성SDI는 최근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배터리 산업으로 발을 넓혀 주력하고 있다. 1994년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배터리 사업을 인수한 삼성SDI는 현재 소형부터 전기차용,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이르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업계 후발주자로서 사업 초기 핵심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업이 본격화된 지 약 10년만인 2010년 소형 배터리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올해 초까지도 국내 ESS 시장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해 시련을 겪기도 했다. 2017년 8월부터 이어져 온 국

내 화재로 인해 배터리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ESS화재 2차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배터리 이상’을 화재의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럼에도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ESS배터리에 특수 소화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등 안전 대책을 발표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나섰다는 평이다.

한편 삼성SDI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100년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초격차 기술의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며, 지금까지 삼성SDI를 지탱해 온 바탕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초격차 기술 중심의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나가자.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기술 중심의 초일류 회사가 될 수 있다”며 “차세대는 물론 차차세대 배터리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50년은 ‘기술’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기술로 시장을 리드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홀린 ‘LG 시그니처 와인셀러’ LG전자가 초 프리미엄 ‘LG 시그니처 와인셀러’를 알리기 위해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제임스 서클링과 함께 온택트(Ontact) 이벤트를 진행했다. 제임스 서클링이 LG 시그니처 와인셀러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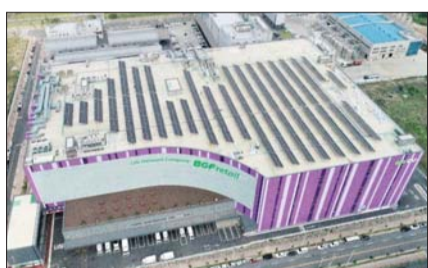
## 한화큐셀, 물류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편의점 CU’ BGF리테일에 1MW급 전력 연간 1400여 명 사용량 생산

한화큐셀이 BGF리테일 중앙물류센터 지붕에 핵심 제품군인 ‘큐피크 듀오’를 설치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26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중앙물류센터(CDC) 지붕에 약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게 됐다. 한화큐셀이 준공한 진천CDC 태양광발전소는 유휴공간인 물류센터 지붕에 2400장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연간 1200MWh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1400명이 가정용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BGF리테일의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중앙물류센터 지붕의 태양광 발전소. /한화큐셀

이 발전소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은 ‘큐피크 듀오(Q.PEAK DUO)’로 한화큐셀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태양광 모듈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게 한 핵심 제품군이다. 큐피크 듀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제품 출력 저하를 방지하는 한화큐셀의 ‘퀀텀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국제 표준 품질 기준의 2~3배에 달하는 엄격한 품질 검사도 진행한다. /김수지 기자

## 정의선 “넥쏘 후속 모델 3~4년 후 출시”

(현대차 수석부회장)

>> 1면 ‘대형 드론에 수소트럭’서 계속

정세균 총리 현대차 부스 둘러봐

현대차는 수소모빌리티 생산을 넘어 도시 구조에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비전을 선보였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가 기존 도시 교통의 의미를 허물고 모빌리티 환승거점(HUB)이 각각의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혁신적 커뮤니티를 구현한 도시 모형을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도 수소모빌리티 플러스 쇼에 참석해 현대차 전시를 격려했다. 정 부회장은 수소경제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았다. 정 부회장은 넥쏘의 후속 모델은 3~4년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모빌리티의 발전은 연관 산업의 동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수소전기차 카셰어링 전문업체 ‘제이카’는 현대차의 수소전기차인 넥쏘,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 총 150여 대를 운용해 광주·창원·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겸 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에서 현대차 부스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스에서 만난 김용진 제이카 과장은 “일반 경유나 디젤 차량의 1km당 주행요금이 100원대 중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저희는 50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50% 감면되고 수소, 전기 충전소 근처에 주차를 시켜놓기 때문에 충전이 편해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2020 수소모

빌리티 쇼 플러스 개막식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내빈으로 참여했다. 개막식 이후 정세균 총리와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전시를 관계자와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개막식에서 자신을 수소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정 총리는 현대차의 수소 대형 상용 수소트럭 ‘HDC-6 넵튠’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스마트폰 1분 만에 사고, 1시간 내 받는다”

KT ‘1분주문, 1시간배송’ 서비스

KT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스마트폰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1분

주문&1시간배송’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이름 그대로 빠르게 휴대폰을 주문하고, ‘1시간’ 내외로 주문한 휴대폰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1분주문’은 본인인증을 기반으로 한 주문이다. 우선 KT샵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사용 중인 요금제를 기준으로 휴대폰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매를 원하는 휴대폰을 고르면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할인 중 혜택이 더 큰 쪽이 기본값으로 입력된다.

‘1시간배송’ 서비스는 KT샵에서 휴대폰을 주문하면, 배송지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대리점에서 단말을 준비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이제 집에서 먹자!

## 폴더버거

*New*



비프 / 핫치킨  세트 ₩7,500 버거 ₩5,7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현대위아 오승훈 러시아법인장과 알렉산더 베글로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가 지난 달 3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에서 열린 엔진공장 기공식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 현대위아, 러시아에 車공장 신축

### 내년 10월부터 年 24만대 엔진 생산 유럽내 상황에 따라 생산엔진 다변화

현대위아가 러시아에 첫 자동차부품 공장을 세우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서 '엔진 공장 신축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기공식에는 알렉산더 베글로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지사, 권동석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오승훈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의 이번 투자는 러시아 정부의 기업투자 촉진제도(SPIC)를 통해 이뤄졌다. 러시아는 현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이 현지 생산 비용을 이항할 경우 부품 수입 관세 인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위아는 기존 중국 산둥성 소재의 엔진공장에서 생산한 엔진을 러시아 및 유럽으로 수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와 물류비를 절감해 수주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대위아는 중국 생산 라인의 일부를 러시아로 이전하기로 했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장 오승훈 상무는 기공식 인사말에서 "러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 엔진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고 수준의 엔진을 생산하며 러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현대위아의 높은 기술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현대위아의 첫 유럽 내 자동차부품 생산기지인 러시아법인 엔진공장은 총 13만2000㎡(약 4만평) 규모의 부지에 지어진다. 이후 2021년 10월부터 연 24만대 규모의 승용 차량용 엔진을 생산하게 된다. 현대위아 러시아법인은 우선 1600cc 가솔린 엔진을 생산한 이후 향후 유럽 내 상황에 따라 생산 엔진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생산량 또한 러시아 및 유럽 시장의 상황에 따라 연 30만대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아차 '2021 셀토스 그레비티'.

## 기아車, '2021 셀토스' 안전·편의사양 강화

연식 변경 모델 출시, 판매 돌입 후석 승객 알림, 전 트림 기본 적용

기아차는 1일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 '2021 셀토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이번 연식변경 모델은 첨단 안전 사양과 고객 편의 사양을 강화했다.

'2021 셀토스'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FCA-JT), 후석 승객 알림 등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신규 적용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그레비티' 모델 운영이 특징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셀토스는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등 최첨단 안전 사양이 대거 적용돼 높은 인기를 끈 하이클래스 소형 SUV다. 기아차는 '2021 셀토스'에 후석 승객 알림을 전 트림 기본 적용해 고객 편의성과 안전

수준을 대폭 높였다.

한편 기아차는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높인 '그레비티'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레비티 모델은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18인치 블랙 전면가공 휠 ▲메탈릭 실버 칼라 디자인 포인트 ▲그 레이 인터리어가 적용돼 더욱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셀토스 그레비티 모델은 '도형의 날카로운 엣지'를 디자인 모티브로 했고, 블랙과 실버 칼라의 대비가 특징이다.

'2021 셀토스'의 판매가격은 ▲1.6터보 가솔린 모델 트렌디 1934만원, 프레스티지 2248만원, 시그니처 2454만원, 그레비티 2528만원 ▲1.6 디젤 모델 트렌디 2125만원, 프레스티지 2440만원, 시그니처 2646만원, 그레비티 2719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 소비자용 4비트 8TB SSD 출시

# 삼성, 스토리지 용량 한계 극복

870 QVO 시리즈  
8TB/4TB/2TB/1TB 4개 모델  
연속읽기 속도 560MB/s로 향상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스토리지 용량 한계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7월 1일 소비자용 4비트(QLC) SATA SSD, '870 QVO'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870 QVO 시리즈'는 8TB(테라바이트)모델과 4TB/2TB/1TB 등 4개 모델로, 업계 최대 용량이다. 6월 30일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과 중국 등 글로벌 40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4비트(QLC) 낸드플래시는 1개의 셀(Cell) 당 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에 고용량 스토리지를 구현할 수 있다.

용량을 두 배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SATA 인터페이스 한계에 근



삼성전자 870 QVO.

/삼성전자

접할 정도로 향상시켜 고용량·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인텔리전트 터보 라이트 기술로 연속읽기, 쓰기 속도를 각각 560MB/s와 530MB/s로 향상시켰으며, 임의 읽기 속도 또한 98K IOPS(초당 입출력작동)로 기존대비 13% 높여 더욱 빠른 부팅과 멀티태스킹, 게이밍에 최적화된 컴퓨팅 환경 구현이 가능하다.

8TB 모델의 경우 최대 2,880TB의 총 쓰기 가능 용량(TBW)을 제공하고

보증기간은 최대 3년이다.

또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Magician 6' 소프트웨어는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용편의성을 높였고 암호화된 제품을 초기화하거나 에러를 사전에 검출하고 수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업계 최초로 4비트(QLC) 낸드플래시에 기반한 '860 QVO'시리즈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까지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해 소비자용 고용량 SSD 시장을 빠르게 확대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브랜드제품 Biz팀 맹경무 상무는 "870 QVO는 기존 제품 대비 성능과 안정성을 크게 높여 SSD시장을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며 "870 QVO는 HDD사용자는 물론 고용량, 고성능을 원하는 SSD 사용자에게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아우디, 순수 첫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 공개

한국시장 공식 출시, 1억1700만원 100만원 상당 충전 크레딧 기본 제공

이렇다할 경쟁자가 없던 프리미엄 전기 SUV 시장에서 아우디가 'e-트론'으로 진짜 미래 프리미엄 모빌리티를 제시한다.

아우디코리아는 1일 서울 강남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를 공개하고 한국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e-트론은 아우디가 만든 첫 순수 전기 SUV다. 포르쉐 타이칸과 함께 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LG화학이 만든 96kWh 배터리와 전기모터 2개를 탑재했다.

e-트론은 사이드 미러에서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다. 세계 최초로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와 디스플레이로 대체한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적용해 훨씬 미래적이고 날렵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를 사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 부분 제프 매너링 사장과 e-트론.

/아우디코리아

해 즉후방을 뚜렷하게 표현해준다.

이는 주행 성능까지 높여줬다. 공기저항 계수를 0.27로 줄인 것. 이에 따라 e-트론은 최고출력 360마력에 최대 토크 57.2kg·m을 발휘할 수 있다. '부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최고 408마력에 최대토크 67.7kg·m까지 폭발적으로 달린다.

e-트론은 최대 주행거리가 307km에 불과하다. 대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브레이크 사용시까지

충전을 해줘 효율을 최대한 높였다.

배터리는 12개 셀과 36개 셀 모듈로 구성된다. 150kW 급속 충전을 지원하는 데, 아우디는 전국 네트워크망에서 급속 충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35대 충전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가격은 1억1700만원이다. 올해 출고 고객에는 100만원 상당 충전 크레딧을 기본 제공하며, 가정용 충전기 설치도 무료로 해준다. /김재용 기자

## LG헬로비전, 헬로tv 채널 확대 개편

시니어 채널 등 21개 신규 편성

LG헬로비전은 케이블TV 서비스인 헬로tv의 채널 확대 개편을 실시하고, 프리미엄 케이블TV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개편은 ▲신규 채널 확대 ▲개별·중소 PP 상생 ▲장르별 채널 배치에 중점을 뒀다.

우선 헬로tv에 21개의 신규 채널을 편성하며, 최대 247개 채널을 제공한다. 시니어 채널인 '시니어TV', '아이넷라이프'를 비롯해 키즈 채널인 '브라보키즈', '뽀요TV', 스포츠 채널 '볼링플러스', '스크린골프존' 등이 추가됐

다. 이외에도 영화, 음악, 해외드라마, 교양 등 다채로운 장르의 채널들을 보강했다.

특히 이번 신규 편성되는 채널 중 90% 이상이 개별·중소 PP다. LG헬로비전은 PP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료방송 고객 만족을 제고하겠다는 포석이다.

LG헬로비전은 강력한 상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케이블TV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고도화된 하드웨어도 결합할 계획이다. 한편, 채널 개편은 이날부터 9일까지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

LGU+

## 장기이용고객 혜택 강화

LG유플러스가 5년, 7년, 10년 이상 모바일 장기 이용고객 혜택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5년 이상 모바일 장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선물과 제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U+멤버십 장기 고객 감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 고객 감사 프로그램'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U+모바일을 5년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기분 좋은 휴가 지원 3중 쿠폰'을 제공한다. 또 U+모바일 7년, 10년 이상 이용자에게는 토크 선물도 추가로 제공된다. /김나인 기자



# “아직도 배고프다”... ‘독주’ 현대건설, 하반기 수주 정조준

노량진·흑석 뉴타운 수주전 예고  
노량진 4구역은 현대건설만 입찰

부산 문현1구역·대연8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돌입

서울 한남3구역과 흥제3구역 시공권을 가져가면서 명실상부 도시정비업계 수주1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건설이 하반기 수주전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뉴타운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대규모 수주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노량진뉴타운의 알짜단지인 노량진4구역에서는 현대건설만 입찰해 유찰된 상황이지만, 2차 입찰공고에서도 다른 건설사가 나서지 않을 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노량진4구역 재개발은 노량진동 227-121 일대 4만512.5㎡에 건폐율 22.8%, 용적률 247.4%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0층 11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조합이 입찰공고를 통해 밝힌 예정된 총공사비는 1988억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5200만원으로 알려졌다.

흑석뉴타운에서는 흑석11구역이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조건부 특별건축지역으로 결정돼 사업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을 통해 흑석11구역에는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동, 건폐율 26.65%, 용적률 200.98%, 총 1509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흑석9구역에서는 새 시공사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 흑석9구역은 기존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롯데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시

공사 선정작업에 착수해 늦어도 11월에는 최종 시공사를 뽑을 계획이다. 흑석9구역은 지난해 10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흑석9구역 재개발은 흑석동 90일대(9만4000㎡)를 재개발해 1538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공사비는 4400억원 규모다.

지방에서는 부산에서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총 2232가구)과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총 3540가구), 우동1구역 재건축사업(1476가구) 등 대형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다.

건설경기 침체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주요 먹거리였던 해외수주 발주가 막히자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사업 수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다음 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분양수익이 줄어 더 많은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량진4구역의 경우 한 번 입찰을 넣은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재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흥제3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올해 누적 수주액 3조4450억원을 돌파하면서 ‘정비사업 수주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켰다. 흥제3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흥제동 2만7271㎡ 대지에 지하 6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63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686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또 경북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를 맡았다. 공사금액은 1조 7378억원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미래에셋대우

## 실시간 해외지수 시세 업계 최초 무료 제공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해외지수 시세를 무료로 실시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고객이면 누구나 미래에셋대우 대표 거래 매체인 m.Globa1, 카이로스, m.Stock을 통해 다우존스 산업, 나스닥 종합, 스탠드앤드푸어스(S&P)500 등 미국지수 3개와恒生/차이나기업(H), 니케이 225, TOPIX 등 아시아지수 4개 등 총 7개의 중요 해외지수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객님들의 해외주식 거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대표 해외지수들의 실시간 시세를 모든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해외주식 투자고객들이 국내주식 투자하듯이 쉽게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투자 정보 서비스의 한글화다. 거래 빈도가 높은 약 2000여 개 해외주식의 리서치 자료를 한글로 제공하고 있으며 로이터와 제휴하여 해외뉴스도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제공 중이다. ETF의 경우 국내 증권사 최초로 주요 10개국(미국, 중국, 홍콩, 한국 등)에 상장된 3700개 가량 상장지수펀드(ETF) 정보를 한글로 서비스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

## 한국파마, 코스닥시장 상장 노크

증권신고서 제출, 324.3만주 공모  
22~23일 수요예측 29~30일 청약



의약품 전문 제조사 한국파마가 지난 3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시장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한국파마의 총공모주식 수는 324만 3000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6500원에서 85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210억원에서 275억원이다.

오는 22~23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9~30일 일반 공모 청

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장 시기는 8월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지난 1974년 설립돼 1985년 법인 전환한 한국파마는 정신신경, 소화기, 순환기 등 전문의약품(ETC) 생산에 주력해왔다. 현재 회사의 전문의약품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86.1%에 해당하며 특화 제품과의 연계성을 통한 처방 시장 점유율 증대와 꾸준한 신제품

개발 중이다.

향후 회사는 점점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국내 정신질환 치료제 시장과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인 치매 인구 증가 현황을 기반으로 정신신경계 의약품에 집중해 중장기 성장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또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전문의약품 분야 외 일반의약품(OTC)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파마의 지난 1분기 실적은 매출

액 166억700만원, 영업이익 11억 8600만원, 당기순이익 7억 42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실적은 매출액 661억 3600만원, 영업이익 72억3700만원, 당기순이익 55억 28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9.3%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7.3%, 44.4%가 증가한 수치다.

박은희 한국파마 대표이사는 “한국파마는 설립 이래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전문의약품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왔다”며 “올해 코스닥 상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제약회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KB증권, 아마존 등 美 IT기업 목표주가 제시

현지 증권사와 리서치 협업, 분석

KB증권은 1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4개 미국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해 투자권고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KB증권은 급격히 늘어난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종목에 대한 투자포인트 분석, 수익 추정, 밸류에이션(가치)을 바탕으로 KB증권의 자체적인 투자권고와 목표주가가 제시되는 본격적인 해외기업 조사분석 자료를 개시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29일 기준 아마존(AMZN)에 대해 투자권 매수(Buy)와 목표주가 3450달러를 제시했다. 아마존은 강력한 물류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성장보다 빠른 온라인 유통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라는 분명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

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전망했다.

KB증권은 아마존을 시작으로 30일 구글·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에 대한 분석자료를 이어서 발간했고, 하반기에는 IT외의 섹터로도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해외 종목 분석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한 회사소개나 해외 자료의 인용 차원을 넘어서 KB증권 애널리스트의 분석 역량과 미국 현지 증권사의 정보 접근성, 신뢰도 등이 결합된 심층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투자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 확인 및 상세 문의를 KB증권 리서치센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본격분양 나서

쌍용건설, 이달 초 견본주택 오픈  
6·17 대책제외 ‘비규제지역’ 주목

쌍용건설은 7월 초, 서울 강남 생활권으로 꼽히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는 지하 3층~지상 19층 15개동 총 873가구 규모로, 이중 1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일반분양)는 ▲59㎡ 180가구(18가구) ▲73㎡ 310가구(62가구) ▲84㎡ 378가구(62가구) ▲97㎡ 5가구(5가구)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은 수도권 지역 대부분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된 비규제지역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성남~장호원간도로 쌍용JC와 가까이 위치해 강남까지 30분



쌍용 더 플래티넘 광주 조감도. /쌍용건설

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경강선인 경기 광주역과 초월역이 가까워 판교역까지 약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강남 30분 생활권’에 속한다.

교통호재도 많다. 인근에는 지난 2016년 개통된 판교~여주 경강선 이후 강남과 직결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9년 서울 수서역에서 경기 광주역까지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키움증권

## 비대면 美주식 첫거래 40달러 드림 이벤트

키움증권이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비대면 계좌 미국주식 첫 거래 고객 및 미국주식 3개월 휴면고객(7월 1일 기준)에게 40달러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키움에선 미국주식 살 때 40달러드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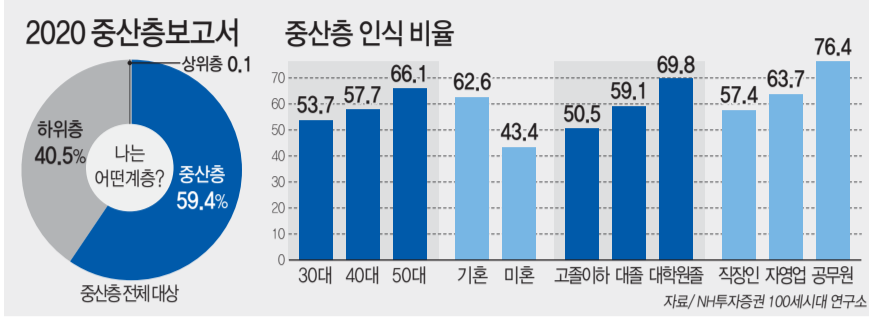
작년 7월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40달러 이벤트는 신청만 하면 바로 계좌에 지급되는 40달러로 고객의 미국주식 거래를 지원해 준다. 입금된 40달러로 미국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미국주식을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이던 고객들에게 부담없는 체험 기회를 준다.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저변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고객의 글로벌 시장 파악을 위한 해외주식 교육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 국민 40% “7억 없는 난 하위층” 금융 빅데이터 추가 개방… 사업기회 확대

NH투자증권 2020 중산층 보고서  
순자산 7억이상 중산층 속한다 인식  
중산층 가구 월평균 소득 488만원  
노후 준비 안한 중산층, 절반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자산이 7억원  
은 넘어야 중산층에 속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산  
층 10명 중 4명은 자신을 하위층에 해  
당한다고 인식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  
일 공개한 ‘2020 중산층보고서’에서 30  
~50대 1349명을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순자산(총자산-부  
채)이 7억7000만원(이하 4인 가구 기  
준)은 돼야 이상적인 중산층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억7000만원은 2019년 기준으로 상  
위 20% 가계의 순자산에 해당한다. 중  
산층의 평균 순자산은 3억 3000만원으  
로 이상적인 순자산과 4억 4000만원 차  
이가 난다.

김진웅 100세시대연구소 부소장은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안에는 들  
어야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정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상위권 선진국에 살고 있지  
만 현실의 삶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또 월 소득 수준이 622만  
원, 소비 수준이 395만원은 돼야 중산  
층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중산층 가구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의 월평  
균 소득은 488만원, 소비 수준은 227만  
원이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계층 인식을 물  
은 결과 10명 중 4명(40.5%)이 자신을  
스스로 하위층에 해당한다고 인식했  
다. 중산층의 낮은 계층 인식은 노후준  
비 현황에서도 이어진다.

중산층 10명 중 7명(67.2%)은 은퇴  
후 중산층 계층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  
고 답했다. 실제 중산층 절반 이상

(52.3%)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고 답했다.

노후 안전 사다리 가 될 수 있는 3층  
연금제도에 모두 가입한 중산층은  
13.7%에 불과했다.

김 부소장은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  
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  
라고 평가했다.

중산층이 희망하는 월 노후생활비는  
279만원(부부 2인)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대략 7억~9억원 정도의 노후  
자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중산층의 노후준비(연금)지수는  
69.4%에 불과했다.

한편 ‘2020 중산층리포트’는 NH투  
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데이터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지원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을 통해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한다. 금융결  
제원에도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  
해 거래 중계과정서 발생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빅데이터 제공  
범위를 늘려 핀테크 창업기업등에 신  
규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신용정보원과 금  
용결제원을 통해 빅데이터 개방을 확  
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  
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유통·결합  
하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원의 CreD  
B를 확대해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로 개방한다.

앞서 신용정보원은 지난달 3일부터  
금융권에 축적된 금융정보(개인·기업·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일반기업·학계  
등에 제공했지만, DB범위에 보험정보  
가 제한되고 분석시스템에 제한된 인  
원(40명)만 접속 가능해 시스템을 고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기존의DB  
범위에서 보험DB를 추가로 개방한다.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5200만명의 보험  
계약, 담보정보를 샘플링 후 비식별 처

**보험DB활용 연구 사례**  
20대 초반 데이터 부족해 결과의 신뢰도↓  
5% 샘플링 + 정해진 항목

↓

**맞춤형 DB**  
청년층 샘플링 비율을 5% → 20%로 확대하고  
DSR·보험가입 등 추가정보 제공

↓

정교한 지원정책 연구  
20% 샘플링 + 추가 항목

자료/금융위원회

리해 제공한다. 보험DB이용을 신청하  
고 선정된 회사(연구자)는 오는 8월 보  
험DB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신용정보원은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 DB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  
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  
링 비율을 확대한 DB를 제공해 20대  
청년층의 부채현황 심층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국내에서는  
금융결제정보를 통계등에서만 제한적  
으로 사용해 핀테크·창업기업이 활용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금  
용결제원은 금융회사간 계좌이체 등  
거래 중계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중계성 데이터(기관코드, 거래정보  
등)와 고객정보데이터(납부정보, 발급  
정보 등)로 구분해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중계성 데이터를 금융  
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중기부, ‘BIG3’ 분야 이끌 벤처 250곳 선정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1차 선정 후 2차 151개, 스타트업 1곳  
1당당 사업·연구개발자금 최대 12억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분야를 이끌어갈 스타트업, 벤  
처기업 250곳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BIG 3  
분야 지원기업 98곳 선정에 이어 2차로  
151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  
러 지난해 12월 메르세데스-벤츠와 공  
동 개최한 미래차 분야 ‘커넥티드카스  
타트업 해커톤’에서 우승한 기업 1개사  
까지 총 250곳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1당당 최대 12억  
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자금  
과 13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250개 기업의 면면을 보면 바이오분  
야가 130곳으로 가장 많고, 미래차 70  
곳, 시스템반도체 50곳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분야별 최종 선정(안))

분야	시스템반도체(50)				바이오헬스(130)				미래차(70)		합계
	SoC	센서	아날로그	인프라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자율주행	친환경차	
2차	14개	8개	4개	7개	32개	12개	12개	13개	26개	23개	151개
기선정*	11개	2개	3개	1개	24개	18개	12개	7개	9개	12개	99개
합계	25개	10개	7개	8개	56개	30개	24개	20개	35개	35개	250개

\*1차 선정 98개, 미래차 해커톤 우승기업 1개, 경쟁률 3.1:1  
(선정목표 350개 대비 777개 신청, 시스템반도체 1.9:1, 바이오헬스 4.1:1, 미래차 2.1:1)

진행한 2차 모집엔 총 456개 기업이 신  
청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285명이 성장 잠재력을 검증하  
고 국민참여단 82명의 의견을 반영해  
151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자  
금 지원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된 기업혁신멘토단을 통해 과제 기획  
부터 성과 점검까지 기업의 성과 창출  
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멘토단에는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서  
울대학교, 바이오헬스는 안정성평가연

구소,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미래차 분야는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고  
려대학교가 각각 참여한다.

중기부 차장총장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신산업의 세부분야별 스타트업에 대  
한 전주기 지원은 중기부가 처음 시도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선정된  
기업들이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BIG3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휴가 2시간씩 쪼개쓴다… ‘반반차’ 도입



업무 효율·몰입도 향상 기대

판토스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판토스는 노경협의회를 통해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쪼개는 반반차 제도를 7

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직원들이 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 효율을 높이  
고,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해 만족도를 높  
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반반차 제도’는 기존의 반차(4시  
간) 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확대한 것으  
로 연차의 4분의1, 즉 2시간 단위로 휴  
가를 나눠 쓰도록 해 근무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선진 근무 제  
도다. 특히 육아나 가정 행사 등 다양한  
사유로 1~2시간의 출·퇴근 시간 조정  
이 필요한 직원 등이 개인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  
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판토스는 지난해부터 ‘8-5제’, ‘9-6  
제’, ‘10-7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선  
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안  
정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김승호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실시

윤중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가운데)과 모델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패스 모  
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공인 신분증을 디  
지탈화 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 받은 국내 최초의 서비스로 7월 1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  
험장에서 면허 재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뉴스

윤중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가운데)과 모델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패스 모  
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공인 신분증을 디  
지탈화 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 받은 국내 최초의 서비스로 7월 1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  
험장에서 면허 재발급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뉴스

## 템퍼코리아, 행복의 비결 ‘휘게 캠페인’ 실시

템퍼코리아는 ‘휘게에서 찾은 행복  
(Happiness found in HYGGE)’ 캠페  
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템퍼의 본고장인 덴마  
크의 행복비결 ‘휘게(HYGGE)’를 주제  
로, 일상 속에서 찾은 행복을 소중한 사  
람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템퍼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아이너  
엔센(Einer H.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에게 휘게에 관한 문화 자문도 받  
았다. 템퍼는 아늑하고 편안함을 의미  
하는 휘게의 핵심은 ‘분위기’와 ‘사람  
들’이라고 말하는 덴마크 대사관의 자  
문을 토대로, 일상에서의 휘게를 즐길  
수 있는 ‘휘게 기프트박스’(사진)를 기  
획·제작했다.

고객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휘게가 의미하는 일상 속 행복을 함  
께 나누길 원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템  
퍼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이벤트 마감은  
26일까지다. /김승호 기자



유한양행



가족의 건강한 한 끼를 위해  
베콤·씨로 채우세요!

한 끼의 완성  
베콤·씨®

비타민 B1 / B2 / B6

비타민 C

토코페롤

셀레늄

광고심의필 : 2020-1532-0014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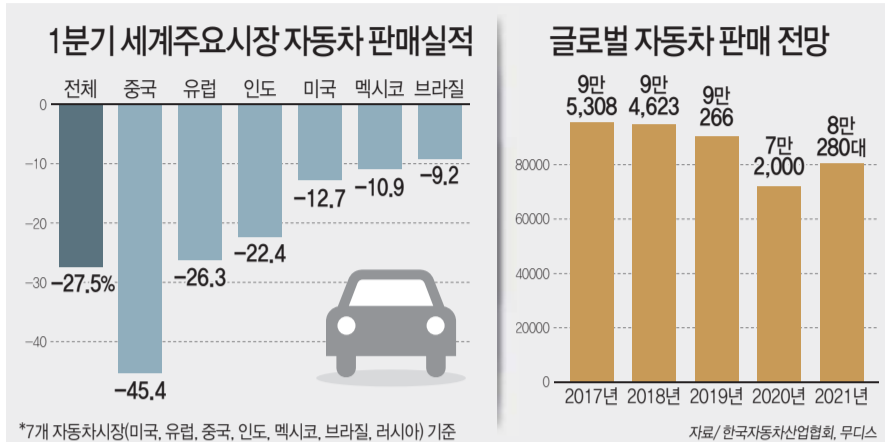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車 선진국의 자세

# ‘기업 살리기’ 동시에 ‘친환경車 체제’ 두토끼 잡기

전경련 ‘주요국 자동차산업 보고서’ 프랑스·스페인, 기업에 자금 지원 독일은 친환경 체제 전환에 총력 “한국도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세계 자동차 산업 선진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살리기’와 ‘친환경차 체제로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사업·인력 재편을 추진하면서도, 디지털 인력을 새로 뽑는 등 친환경 자동차 체제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자동차 회사를 살리고, 친환경차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 주장했다. 1일 전경련이 공개한 ‘주요국 자동차 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세계 주요시장 자동차 판매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27.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45.4%)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유럽(-26.3%), 인도(-22.4%) 순이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도 작년보다 2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의 경우 기업을 살리고 친환경 자동차 체제로 전환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뉼엘 마크롱 대통

령이 직접 80억 유로(10조8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경영 위기에 빠진 르노자동차에 50억 유로(6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차 체제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6000유로(807만원)에서 7000유로(942만원)로 인상하고, 내연기관차를 구입할 때도 3000유로(404만원)를 지급한다. 2023년까지 전국에 10만개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스페인 정부도 37억5000만 유로(5조원) 규모의 자동차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스페인에서는 부품 회사를 포함한 자동차 회사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등 약 27억 유로(3조6000억원)를 금융 지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독일도 친환경 체제 전환에 적극적이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3000유로(404만원)에서 6000유로(807만원)로 인상하고 충전 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경제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미래자동차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금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품사 지원에 정책이 집중됐었다”며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가자 산업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고 과감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위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자율차를 위한 도로·통신 인프라 구축 등 미래차 산업에 대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디스플레이, ‘큐디’ 전환 가속화

큐디 설비 반입 본격화 내년 시가동 후 제품 생산

삼성디스플레이가 큐디(QD) 전환 작업을 본격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7월 1일 충남 아산 사업장에서 ‘QD 설비 반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훈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권택담 소장을 활용한 큐디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발표한 후, TV용 LCD를 생산하는 L8라인의 일부 설비를 철거하고 QD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클린룸 공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클린룸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8.5세대 증착기 등 큐디 설비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 하반기까지 셋업을 마무리하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사업장에서 이동훈 사장(왼쪽 여덟번째)이 다른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고 내년부터 단계별 시가동에 이어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라인 구축과 함께, 내년 프리미엄 TV 시장 진입을 위해 큐디 제품의 완성도와 양산성을 높이기 위한 막바지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도 전개 중이다.

최주선 대형사업부장은 이날 반입식

에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력업체들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QD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경과를 설명하며 “지난 20여년간 축적해온 LCD 대형화 기술과 권택담 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화질의 QD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테크윈 차세대 보안카메라 출시

한화테크윈이 1일 차세대 영상처리 SoC(통합칩) ‘와이즈넷7’을 탑재한 신형 보안 카메라(사진)를 출시했다.

차세대 보안 카메라 핵심 부품인 와이즈넷7은 한화테크윈이 자체 개발한 영상 처리 칩셋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한화테크윈이 유일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신형 카메라는 최대 4K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하고, 선명도와 색상 표현력을 높이는 ‘노이즈저감알고리즘’, ‘익스트림 역광보정’ 등 기능도 탑재됐다.

/양성운 기자

## 청바지 입고 출근... 롯데지주, 복장 자율화

‘일하는 방식 변화’ 유도 일환

롯데지주가 1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장 자율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 전 임직원은 회사에서 근무 복장으로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캐주얼 의류(라운드티, 청바지, 운동화 등) 등을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판단해 일할 때 가장 편한 복장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 26일에 진행된 롯데지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정됐다.

현재 자율복장제도는 롯데케미칼, 롯데컬처웍스, 롯데멤버스 등이 시행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을 권장했으며, 금요일만 자율 복장이 가능한 ‘캐주얼 데이’를 운영해 왔다.

한편 롯데지주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되는 업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전 임직원 대상 재택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 특성에 맞춰 일주일 중 자신이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집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손희영 롯데지주 기업문화팀장은 “기존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레이싱부터 야구·축구·퍼즐까지 너도나도 캐주얼 게임에 ‘퐁당’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양대 마켓서 상위권 순위 점령 애니팡4·피파모바일도 흥행

“예전에 매일 즐기던 게임을 모바일로 하니 추억이 되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래픽도 PC에 비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니아층이 즐기던 모바일다중접속 온라인역할수행게임(MMORPG) 일련의 시장에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퍼즐 게임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모바일 앱·순위 분석 사이트 게블루션에 따르면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구글플레이 기준 인기 순위 1위, 앱스토어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출시한 선데이토즈의 ‘애니팡4’는 애플 앱스토어 기준 인기순위 1위를 차지했다.

앱애니가 발표한 ‘2020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은 지난해 전세계 게임 다운로드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케이드와 퍼즐 게임이 각각 47%, 21%다.

특히 지난 5월 출시한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역할수행게임(RPG)과 전략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대중성 있는 캐주얼 장르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게임이 처음인 이용자들도 쉽고 간편하게 레이싱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달 말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회를 연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전국민 대회 프로젝트 ‘카러풀 스타컵’을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인플루언서와 일반 유저가 팀을 이뤄 토너먼트에 참가해 모바일 레이싱 최강팀을 가리는 방식이다.

짧은 시간을 투입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퍼즐 게임도 인기다. 선데이토즈가 출시한 애니팡4는 시즌제로 나온 대표적인 캐주얼 게임이다. 퍼즐 플레이



‘카러풀 스타컵’ 참가자 모집 이미지. /넥슨

로 누구나 실시전 대전을 구현할 수 있다. 전작에 비해 길드 개념도 도입해 이용자들이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게임도 주목받고 있다.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에서 비스하는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2020’은 출시 후 지금까지 누적 1500만 다운로드 달성과 함께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 국내 모바일 스포츠 게임 매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출시한 넥슨의 축구 게임 ‘피파 모바일’은 출시 이후 첫 주말 구글플레이 최고 매출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준으로도 양대 마켓 상위 10위권 안에 안착했다.

오는 8일에는 넷마블의 신작 야구게임 ‘마구마구2020 모바일’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마구마구2020 모바일은 15년간 넷마블이 서비스해 온 PC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으로, 핵심 개발진들이 투입돼 만든 모바일 야구 게임이다. 지난 달에 열린 온라인 쇼케이스는 누적 시청자가 반나절 만에 22만명을 돌파해 흥행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니아층이 형성된 MMORPG와 달리 캐주얼 게임은 조작이 간편하고, 익숙한 IP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게임을 즐기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진입장벽이 낮다”며 “IP를 어떻게 활용하고 모바일에 녹여내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 집 팔라더니... 靑 다주택자 8명 3년간 아파트값 평균 7.3억 ↑

일부 참모진 청와대 권고에 소극적  
경실련 '참모 교체' 기자회견 열어  
"국민 원하는 투기근절대책 마련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방  
지 차원에서 연이어 정책을 내는 가운  
데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  
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  
서 집값 안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  
에도 일부 청와대 참모진은 집을 팔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데 따른 비  
판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  
도권과 투기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이 있  
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  
고 6개월 내 한 채를 매각하라고 권고  
했다. 당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투  
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 이  
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11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영민 실장의 다주택 매각  
권고를 이행한 참모진은 극소수에 불  
과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일 공개한 올해 3~6월 청와  
대 공직자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  
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2017  
년 5월 기준 94.3억에서 올해 6월 기준  
152.7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  
억(62%) 상승한 수치다. 같은 날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25→0.49%, 지방은 0.03→0.33%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열린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주택처  
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거 격차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과 비교할 때 상승 폭이 커졌다.  
경실련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1일 청  
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뛰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  
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  
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  
기 근절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도 청와대 참모들은 솔선수범하지 않  
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청와대 참  
모와 관련한 다주택 보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  
선집중'에 출연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노 실장 권고에도 다주택을 보유한 데  
대해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 점은 저  
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는 논란에도 "권고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  
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참모 논란과 관련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  
용은 없다"면서도 "(노 실장이 지난해  
말 참모들에게 한 권고는) 당연히 유지  
된다. 지금도 그 권고를 이행한 분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실장의 권고는)  
법적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하고 그 안  
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 각자 사정에 따라 권고한  
대로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나"며 "말 그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다. 당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고, (노 실장이 권  
고한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내용  
이) 변경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정책실장은 같은 날 M  
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 가운데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국  
민께서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국민  
들에게 가장 어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엔택트 마케팅 등 中 공략 코트라, 무역투자 전략회의

中, 1500조 슈퍼경기부양책 발표  
기업협력·투자유치 등 수출기회로

KOTRA(코트라)가 지난달 30일 온  
라인으로 중국지역 무역투자 전략회의  
를 개최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8조5000억 위안(약 1500조  
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인프라, 소비, 민생 분야에 예산을 집  
중투자해 성장 불씨를 살리고 미래 동  
력까지 마련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은  
우리 수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코트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소  
비 진작책을 활용한 엔택트 마케팅 ▲  
GVC 재편에 따른 중간재 진출 ▲중국  
산업정책과 연계한 한·중 기업 협력 ▲  
수요 맞춤형 투자유치 등 하반기 중국  
시장을 공략할 '4대 전략'을 논의했다.  
권평오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  
비해 중국 현지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  
고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자"고 강조  
했다.

코트라는 엔택트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중국 6개 거점 무역관에  
K-스튜디오를 구축했다. K-스튜디오  
는 화상상담과 왕홍 생방송 등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상설 비즈니스 공간이  
다. 소비재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기업도 온라인으로 현지 바  
이어와 소통할 수 있다. 중국 무역관은  
내수기업 1000개를 지원해 수출기업으  
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코트라의 상반기 중국지역 긴급  
마케팅 성역약 중 80%는 자동차부품  
등 중간재였다. 코트라는 GVC 재편에  
대비해 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자동  
차·조선기자재 위주에서 항공·가전·기  
계·반도체 분야로 넓힌다. 중국 공급망  
전환에 따른 대체 수요도 발굴해 중간  
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술집  
약 업종은 국내 복귀를 도모해 공정별  
로 안정적 생산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인다.

중국의 산업 육성전략도 주시할 필  
요가 있다. 5G, AI, 산업인터넷망, 빅  
데이터, 특고압 설비, 고속철도·궤도교  
통, 전기차충전소 등이 중국 정부가 제  
시한 신(新) SOC 7대 분야다. KOTRA  
는 해당산업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기  
업의 진출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  
히 클라우드, AI, 로봇, 신소재, 측정검  
사기기 등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큰 분  
야에서 기회를 발굴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  
제전망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1%로 예상했다.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성운 기자 ysw@



권평오 KOTRA 사장(오른쪽)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농진청, 도라지 표준유전체 세계최초 해독

우수 유전자, 종자개발 등에 사용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로 도라지  
표준유전체를 해독하고 도라지 사포닌  
생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했다  
고 1일 밝혔다. 표준유전체란 특정 생  
물종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유  
전체 정보를 말한다.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사업을 통  
한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  
자의 종류와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  
히는 연구로, 우수한 유전자를 활용하  
여 종자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토종 품종 유전체 해독을 다른

나라가 먼저 할 경우, 신품종을 개발할  
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  
문에 유전자원 주권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은 농  
식품부, 농진청, 과기부 등 7개 부·청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다부  
처 공동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은 8년간  
농작물, 가축, 곤충 등 우리 고유자원  
40작목의 유전체 해독을 담당하고 있  
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  
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인 장백도라지  
를 선정, 유전체 680Mb를 해독하고 유

전자 40만18개를 발굴했다.

도라지의 주요 약리물질인 사포닌의  
대사경로를 분석한 결과, 기관지 보호  
효과가 뛰어난 베타아미린에 관여하는  
24개 유전자를 새롭게 밝혔다.

도라지와 인삼은 다른 종류의 사포  
닌을 생산하며, 여기에는 4개의 유전  
자가 관여하는 것도 밝혀냈다. 도라  
지 사포닌은 스쿠알렌부터 베타아미  
린의 대사경로를 갖는 올레아닌형 사  
포닌이며, 스쿠알렌부터 담마레네디  
올의 대사경로를 갖는 담마레닌형 사  
포닌이다.

/한용수 기자 hys@

# 해수욕장 인명사고 유발 '이안류' 주의

해수부, 이안류 지수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  
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  
록 7월1일부터 '안전해' 앱과 국립해양  
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이안류 지수 서  
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육지 쪽으로 밀려든 바닷  
물이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  
게 빠져 나가는 흐름으로, 얕은 곳에 있  
던 해수욕객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먼 바다로 이동시켜 인명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안

류로 인한 구조자수는 963명에 달하  
며, 이안류는 파도가 잔잔하거나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11년 부산해운대  
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7개 해수욕장  
에 대해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를 운  
영하고 있다. 올해는 강원도 속초해수욕  
장을 추가해 총 8개 해수욕장 이안류 지  
수를 확대해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 "20% 할인된 가격에 한식 즐겨요"

농식품부 '2020 코리아 고메위크'

전국 한식당 250여 곳에서 최소 20%  
의 할인해주는 등 한식 소비 촉진 행사  
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코  
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를 극복하  
고 한식업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 코리아 고메 위크(Korea Gour  
met Week)'를 7월3일~30일까지 지역  
별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 주요 한식당에서 진행  
되는 외식소비 촉진 행사로, 한국외식  
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외식  
단체를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  
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문화3대 개선과제를 지키는 한식  
당 250여 곳이 참여한다.

행사는 서울서울(7.3~7.16)을 시작  
으로 부산·대전(7.10~7.23), 광주·대  
구(7.17~7.30) 소재 한식당에서 진행  
되고, 참가 한식당의 1가지 이상 대표  
메뉴를 국민 누구나 최소 20% 이상 할



2020 코리아 고메위크 홍보 포스터

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  
해 농협 하나로유통과 협업체가 참가 한  
식당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식  
자재를 구입하고 농협은 추가 할인과  
포인트를 제공한다.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해 릴레이 캠페  
인, 리그램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  
비스(SNS)이벤트가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우리도 등록금 반환 대상” 이유있는 대학원생 목소리

등록금 반환요구, 학부생 중심 논의 대학원생 정원도 적어 의견개진 난항 “강의 질 떨어지는 상황 마찬가지”

대학 학부생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도 반환 대상에서 대학원생은 제외된 상태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학생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최 요청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과 학교 간 등록금 반환 논의가 예정되면서 대학원도 반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 3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평년과 같은 등록금에 많은 학생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학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시

부뿐 아니라 대학원 역시도 등록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최 요청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도 최근 1차 의견문을 통해 대학본부에 등록금 반환 요구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학생 대표자가 포함된 등록금 재정책 논의 테이블 마련을 요구했다. 연세대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는 3월 말부터 교내 대학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논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등록금 반환 요구는 주로 학부생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대학원생의 등록금 반환 여부는 수면 위에 오르지 못했다. 대학원생은 정원이 많지 않아

총학생회 자체가 없는 대학이 많아 학생들의 의견 등 목소리를 모으는 게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

연세대 한 대학원생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던 대학원 강의가 코로나19로 화상회의 앱으로 이뤄지다 보니 질문이나 토론 등이 매끄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원격강의로 단순 지식 전달에 그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 강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은 학부나 대학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반환 대상을 대학원까지 넓히는 데는 미온적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금 배당 여부를 ‘대학 자구 노력’에 기반해 가르기로 했지만, 환급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포함한다는 조건은 지금까지 거론된 바 없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반환성 특별 장학금과 2학기 등록금 삭감을 확정된 건국대도 환급 대상에 대학원생은 포함하지 않았다.

건국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에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 논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합당 한 관계자도 “대학생까지 지원하면 대학원생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등의 우려 사항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교육당국은 대학이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환급·감면하면 해당 학교를 간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전국 32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달 27일까지 모집한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에 대학과 대학원생 373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건국대, 등록금 반환 실현... 44억 ‘특별장학’ 편성

2학기 등록금 중 일부 감면 방식 총액 기준 8.3% 반환 효과 계획

건국대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와 ‘교학소통위원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 총 44억원의 ‘특별장학’을 편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주요 대학 중 학생과 합의를 거쳐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실현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총 44억원의 ‘특별장학’을 편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건국대는 특별장학의 취지에 맞게 전액 국가장학 학생 등 사각지대가



건국대학교 정경

없도록 전체 등록 재학생에게 일괄 10만원 씩 학업장려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계열별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일정 비율로 등록금성 장학금을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거나 계좌 이체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총액 기준 8.3%의 감면 또는 반환 효과가 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2학기 고지서 감면이나 1학기 계좌이체 등의 방법은 학

생이 각자 선택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의 경우 36만원 ▲수의학계열의 경우 39만원의 특별장학금이 지원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열별 8.3%의 등록금 감면 또는 반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학 총액 44억원은 한 학기 수업료 총액 500억원의 8.9%에 해당한다.

건국대 추산에 따르면 5000여명의 학생은 35만원 이상~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148명(외국인유학생 포함)은 최대 4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충주 글로벌캠퍼스도 같은 방식으로 19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전체 재학생에게 계열별 등록금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방산비리 비호하는 이상한 軍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대한민국 군대는 피아식별도 못한다. 누가 자기들을 도울 존재인지 해할 존재인지를 모른다.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옹호하고, 이들을 막으려고 나서는 자들을 쥐는 군대가 정상인가. 지난 2016년 4월 국방조달시스템을 들여다 보다 베일에 싸여있던 183억 규모의 심리전 대북확성기 사업 내용이 딱히 펼쳐져 있었다. 당시 대북확성기 운용 단독보도와 함께 올린 기사가 있다.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이었다.

대북확성기 배치는 빠르게 퍼져 나갔지만,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은 군당국의 몰타기 기사로 오랫동안 묻혀버렸다. 해군 소령으로 복무 중 용기있게 내부고발을 했던 김영수 국방원인연구소장(2016년 당시)이 비리의혹을 현미경처럼 파고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4년 간 대북확성기 비리를 추적하면서 시장조사가격과 다른 납품가 부풀리기, 성능미달, 성능평가 기간 연장 등 위법한 정황을 단질 때마다 국방부와 국방부 예하 국군심리전단은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6년 10월 4일 국방부대변인실 입회 하에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대북확성기의 성능평가 문제는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16년 4월 긴급공고로 공지된

‘대북확성기 사업입찰 제안요청서 제2호 마항’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 낙찰 업체는 2016년 7월 중으로 성능평가를 완료 후 11월말 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납품기간을 연장 해주면서 또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확성기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 납기일 연장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군 당국은 부정당행위로 낭비된 시민의 돈을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한다. 지난 1월말 본지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를 넣었지만 국방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국방부는 부당이익 환수보다 다른 주머니에 관심을 뒀던 것 같다. 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공익 신고한 제보자인 김 소장을 ‘군사기밀 누설’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한 것이다.

그는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부 심리전단장과 국방부 법무관관리를 상대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을 도우려는 그에게 군 당국은 조준선을 돌린 것이다. 결국 김 소장은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피아구별도 못하는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비리라는 소나비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이 여름철 장맛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captinm@

## 교비로 ‘황금열쇠’... 법카로 ‘해외여행·경조사비’

### 교육부, 세종대 종합감사서 무더기 비리 적발

회계연도 수익률 0.38~0.68%에 그쳐 법정 최저 수익기준에도 부족한 수준

세종대가 퇴직 직원들에게 교비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황금열쇠’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한 직원은 해외에서 호텔 숙박비 결제 시 학교 법인카드를 쓰거나 업무 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낸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세종대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부실하게 관리해왔다고도 지적했지만, 세종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시한 세종대 종합감사에서 수익용 재산 부실 관리 등 4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양학원 한 임원은 150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1975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2016년 3월 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도쿄 소재 호텔에서 법인카드도 49만원을 결제하는 등 2018년 11월까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만 617만원에 달한다.

세종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과 함께 교비로 순금 10돈 상당(구입 금액 250만원)의 황금열쇠를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학금지급에서도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세종대는 학생 28명에게 지급한 학생지원비 1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처리했다. 봉사장학생 장학금지급에서는 미자격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131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세종대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연도 수익률이 0.38~0.68%에 그쳐 법정 최저 수익기준(연도별 1.56~2.73%)

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대해 세종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지만,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라는 것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등 합계 9억원을 받았다.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반박했다.

/이현진 기자

# 1등 가격, 입지, 교통... 무엇을 비교해도 청라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습니다!

## 중·소형 아파트 - 청라 큐브 시그니처 1015



**1차**  
조기 완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차**  
분양 시작  
많은 방문 바랍니다

### 강남 7호선 연장 골든라인! 시티타워역 도보 3분!



### 진짜 청라의 핵심 위치!

청라의 골든블럭 - 청라 국제업무단지 큐브 시그니처 1015

**1등** 청라 국제업무단지 매머드급 최대 규모 1,015세대  
국내 최대 높이 448m, 시티타워 착공(2019년)  
호수공원, 커널웨이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인접

강남 7호선 시티타워역 개통예정으로 강남으로 쾌속질주  
BRT 개통(9호선 가양역 운행 중), GRT 운행(청라 내부순환)  
청라 스트리밍시티 추진확정(8,400억 투자예정)  
하나금융타운 본사이전 등 약 28,000여명 등 상주인구 증가  
복합의료단지 약 1조 5,000억 투자 및 약 8천여명 고용예상

신청금 입금계좌 ※ 미계약시 전액 환불

납부금액	오피스텔 : 금일백만원(1,000,000원) / 근린생활시설 : 금오백만원(5,000,000원)
예금주	(주)신영부동산신탁    은행 및 계좌    국민은행 : 024801-04-470552



시행사 **R(주)태릉건설**    시공사 **J&M consulting**    신약사 **신영부동산신탁**    협력은행 **NH농협은행** | 총 1,015실 (중/소형 구성)

- 전용면적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선(인목치수)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선정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지방세 등은 미포함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용면적으로 하여,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1522-2533**

홍보관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82번지 / 다인빌딩 2층(철산역 1번 출구)





**신한은행, KS-SQI 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20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7년 연속 은행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서비스 전반을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고 꾸준히 개선 활동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한은행 박현준 부행장(왼쪽)과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롯데정밀화학, 보바스기념병원과 환아가족 힐링여행 지원**  
롯데정밀화학은 지난 달 30일 보바스기념병원, 보바스어린이의원과 함께 환아가족여행 지원 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정밀화학이 후원하고 보바스어린이의원이 진행하는 'mom(맘)편한 힐링타임 파인트립' 사업은 장기간의 치료와 입원으로 여행을 경험하기 어려운 환아가족들을 대상으로 여행을 통해 활기를 찾고 재활의 희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왼쪽부터) 보바스어린이의원 윤연중 원장, 롯데정밀화학 정경문 대표이사, 보바스기념병원 박진노 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하나은행-대한LPG협, 친환경 LPG 차량 보급 맞춘 업무협약**  
하나은행이 대한LPG협회와 '친환경 LPG차량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협약으로 하나은행은 환경부와 대한LPG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사업'에 동참한다. 정석화 하나은행 리테일그룹장(왼쪽)이 이필재 대한LPG협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기보,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발대식**  
기술보증기금은 '제3기 기보 청년기술평가체험단'에 선발된 24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30일 발대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체험단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기업 현장 방문해 기보의 기술평가 과정을 체험하고, 체험기를 작성해 장래 구직희망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보

인사

-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정책기획관 최정석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운영지원과장 김경열 ◇서기관 전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심경보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조상민
-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우수 ◇서기관 전보 △생활용품 상표심사과장 엄기훈 △방송미디어심사팀장 임현석 △서울사무소장 이동걸
-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김지연 ◇과장급 임용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정소영
- ◆통계청 ◇일반고위직공무원 전보 △통계교육원장 은순현
-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장 이경근 △광주지방보훈청장 임성현 △보상정책과 생활안정과장 조경철 △복지증진국 복지운영과장 박용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윤명석 △경기

- 남부보훈지청장 김남영 △경기북부보훈지청장 황후연 △경기동부보훈지청장 김장훈 △강원서부보훈지청장 이광현 △국립이천호국원장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 김상출 △경남서부보훈지청장 강석두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김영진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유형선 △국립임실호국원장 김덕석
- ◆BNK투자증권 ◇승진(이사대우) △FICC솔루션부 김남민
- ◆신한생명 ◇신규선임 △부사장 DB마케팅그룹 이기흥 △상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유희창
- ◆한국감정원 ◇본부장 △수도권본부장 정상규 △서남권본부장 백승규 ◇실·처장 △ICT추진실장 임성기 △부동산통계처장 김능진 △평가관리처장 채성훈 △노색건축처장 윤종돈 △시장분석연구실장 강석덕 ◇지사장 △서울강남지사장 김상윤 △서울남부지사장 권용수 △경기남부지사장 서경화 △경기동부지사장 이남훈 △경기북부지사장 최경현 △경기서부지사장 박영래 △춘천지사장 이정섭 △강릉지사

- 장 윤종훈 △천안지사장 마정호 △충주지사장 이정환 △광주지사장 김재남 △제주지사장 장덕자 △부산서부지사장 김종한 △울산지사장 윤관성 △진주지사장 박창일 △대구지사장 한익현 △안동지사장 장우석
- ◆하나금융투자 ◇상무대우 승진 △실물투자금융3실장 정원재 △금융화금융실장 서한서 △투자심사실장 윤현석 △영업부금융센터장 김용수 ◇부사장 선임 △IT지원실장 신승철 △인력지원실장 정석용 △준법감시실장 이의수 △신림역시점장 김원림 △범어동시점장 정용범 △압구정금융센터장 김동희 △인천시점장 정진일 △은평시점장 김상진 △익산시점장 유성수
- ◆BNK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외환사업부장 정재하 △일광산도시점장 김형열 ◇부실점장 전보 △구로디지털시점장 이창민 △미남시점장 강균화 △영동동시점장 이상경 △투자금융부장 신동훈 ◇3급 승진 △IT기획부 승위창 △W스퀘어지점 김동진 △남천동지점 김지영 △디지털사업부 우영석 △디지털전략부 손지현 △신협사업단 김성일 △여신심사부 허

- 동은 △연산동금융센터 신희병 △좌동지점 신성 △카드사업부 김길완 △투자금융부 백승기 ◇4급 승진 △IT개발부 이동규 △IT개발부 허오근 △구서동금융센터 김혜경 △리테일금융부 김세진 △마케팅추진부 염지연 △황진 △시화공단지점 김수현 △여신기획부 이창선 △외환사업부 신정은 △이선지 △인사부 김지훈 △잠실지점 김중웅 △재무기획부 서정탁 △채널운영부 김원익
- ◆교보증권 ◇신임 부서장 △금융상품1부 송기호 ◇전보 <지점장> △사당동지점 방성훈 <부서장> △금융상품2부 고광서 △재경부 김양석
- ◆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사업감사담당관 김세환 △연구개발총괄팀장 김상호
- ◆GC녹십자 △부사장 임승호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처장 겸 고전번역전문도서관 권경열
- ◆예술의전당 △공연예술본부장 박상훈 △감사실장 태승진 △미래전략실장(직무대행) 김세연 △공연사업부장 양우제 △교육사업부장 김미희 △영상문화부장 손미정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장 이호준
- ◆세계한인무역협회 ◇지회장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손헬렌 △싱가포르 김종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진흥본부장 김종영
- ◆한국일보 △주필 이충재 △뉴스룸국 국장 이태규 △ 제1부부장 박익근 △ 제2부부장 김정곤(사회부장 겸임) △ 제3부부장 이영태 △ 디지털뉴스부장 박선영 △ 멀티미디어 기획영상팀장 김주영 △ 디지털전략부 디지털전략팀장 김주성 △ 국제부 차장대우 강은영 △ 사회부 차장대우 김정우 △ 산업부 차장대우 김기중 △신문국 국장 정진황 △ 에디터 겸 논설위원 조재우 △ 최형철 △ 조철환 △신문국 에디터 겸 IT전문선임기자 최연진 △ 에디터 겸 영화전문기자 라제기 △ 종합편집부 차장대우 배성재
- ◆아시아투데이 △연예기획부장 조성준
- ◆광주매일신문 △전무이사 겸 편집국장 이경수 △사업본부장 오성수

#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윤 위 종 역  
잠시 쉼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살바싸움을 하고 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410원(16.4%) 오른 1만원의 최종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80원(2.1%) 깎은 84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이런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입장을 대변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며,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한국 경제 역성장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고, 최근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고 상대적 수준도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과 고용상황이 악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과거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하던 시절에는 노동자들의 부가가치 창출 대부분이 회사에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겪곤 했다. 부의 편중심화 현상과 사회불만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년새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경제성장률을 웃돌 정도로 과도하게 높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나 자영업자들은 ‘알바보다 못한 사장’이라고 자조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돼 있다. 그래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화하는 제안도 나왔으나 최저임금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두됐고, 6월 29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의 지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발달 속

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특히 올해엔 코로나19로 그 동안 주저했던 기술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산업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갈수록 사람의 입지가 줄어들다’로 요약할 수 있다. 내가 듣고 있는 목소리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해, 챗봇 같은 경우 수많은 상담사들을 대신할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 로봇은 단순 노동을 대신하며 자리를 채우고 있다. 서빙로봇에 이어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의료정보화 등등을 보면 비전문직 노동자들의 역할을 이미 대체할 수준까지 발달했다. 최저임금이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숙련된 전문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고 있지만 단순 노무직의 자리는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인간비에 압박을 받은 사용자 측이 사람대신 기계 사용을 계속 늘릴 경우 전체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산부부장 yhj@metroseoul.co.kr

# 현대백, 17개 아동센터에 마스크 등 온정 나눔

마스크 1.4만장 위생용품 1200개 태블릿 PC 180대 등 전달키로 그랜드 바자 수익금도 일부 기부

현대백화점이 아동 복지 및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예년보다 지원의 손길이 더욱 필요해진 지역아동센터에 위생용품 및 온라인 학습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5개 점포와 결연을 맺은 지역아동센터 17곳에 마스크 약 1만4000장,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약 1200개, 태블릿 PC 180대를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 5월 입점 협력업체의 재고 소진을 지원하기 위한 ‘그랜드 바자’를 진행하고, 행사 수익금 일부를 기부키로 한 바 있다.



29일, 서울 구로구 행복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한 지원 물품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이번 지원에 앞서 각 점포별로 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파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년보다 지원

물품의 종류를 늘리고 구하기 어려운 물품을 일괄 구매해 전달했다는 것이 현대백화점 측 설명이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글로벌 팬·젊은층 ‘매력’... 식품업계, e스포츠에 빠지다

**농심** 내년 e스포츠분야 진출 ‘팀 다이내믹스’ 인수 협약 맺어

**롯데제과** LCK 공식 후원사 참여 월드콘 모델로 프로게이머 발탁

**한국야쿠르트** LoL 팀과 파트너십 ‘하이프레시 블레이드’로 새출발



LoL e스포츠팀 하이프레시 블레이드x한국야쿠르트 네이밍 파트너십 체결.

최근 식품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스포츠로 눈을 돌리며 글로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이 온라인게임 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2021년부터 e스포츠 분야에 진출한다. 농심은 지난 달 국내 e스포츠팀인 ‘팀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 협약을 맺었으며, 2021년 출범예정인 한국프로게임리그에 도전한다. 팀 다이내믹스의 리그 가입이 확정되면 리그 가입비와 운영비 등을 투자하여 해당 팀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농심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바둑대회를 20년 넘게 운영해왔던 것처럼 e

스포츠를 통해 젊은 세대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포부다. 농심은 1999년부터 한중일 바둑기사가 참여하는 국가대항전 형식의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을 운영해 왔으며, 대회 창설 20년 만에 중국 매출이 40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팀 다이내믹스가 도전하는 한국프로게임리그는 온라인 1위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한국 프로게임리그협회(LCK)가 운영주체로, 심사를 통해 9월

말 총 10개의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LCK는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약 463만 명의 순 시청자가 지켜보는 인기 e스포츠 대회다.

e스포츠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더욱 부각 받고 있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시청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수천 명이 응원하는 야구나 축구를 비롯한 오프라인 스포츠 종목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낮다.

야구팀 한해 운영비가 400~500억 원인데 비해 LCK 리그 가입비는 100억 원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주요 타깃인 젊은 층의 시청률이 높은 데다가 전 세계 10~30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홍보 효과가 있다. 업계에서는 e스포츠가 국경을 넘어선 인기를 얻고 있어 코로나 19로 막힌 글로벌 소비자, 특히 10~20세대와의 소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롯데제과도 올해 서머시즌부터 LCK 공식 후원사로 참가하며 e스포츠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월드콘 광고 모델로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를 발탁했다. 페이커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8차례 우승을 거머쥔 유명 프로게이머다. 챔피언십과 MSI, 리프트 라이벌즈에서도 잇달아 우승컵을 들면서 게임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롯데제과는 10·20세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페이커를 모델로 기용해 아

이스크림 1위 업체의 존재감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야쿠르트도 지난달 리그오브레전드팀 ‘브리온 블레이드’와 네이밍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브리온 블레이드는 ‘하이프레시 블레이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브리온은 이번 네이밍 파트너십 체결을 단기적인 스폰서십에 그치지 않고, LCK 프랜차이즈 이후 추가 3년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둬으로써 팀의 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e스포츠 분야 진출은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과 같은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이라며 “e스포츠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는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어 농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을 즐기는 젊은 층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쿠팡, 동료접촉 원천차단 ‘강력 거리두기’

물류센터·배송캠프 등 전 사업장서 쿠팡맨, 사무실 아닌 지정차량 출근 탈의실·흡연실 등도 잠정 폐쇄키로



물류센터도 직원간 거리두기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쿠팡은 물류센터 직원들이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직원간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와 인력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물류센터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두 배 가량 증차했으며, 모든 식당에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했고, 흡연시설과 휴게실 등에서도 엄격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통근버스 승차 및 사업장 출퇴근 시 QR코드를 사용해 체온 및 건강 기록을 관리하고, 코로나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하게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쿠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현장 근무자 안전을 위해 배송캠프, 물류센터를 비롯해 전국 모든 사업장에 ‘초고강도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의 ‘초고강도 거리두기 캠페인’은 물류센터, 배송캠프 등 전국에 뻗어 있는 로켓배송 센터를 포함해 잠실 사무실 등 쿠팡의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거리두기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과하게 여겨질 만큼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조

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다. 먼저 여러명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업무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전국의 쿠팡맨들은 배송캠프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개인별 지정된 배송차량으로 곧장 출근한다. 지정 차량에 배정된 상품들을 적재하고 바로 배송에 나서기 때문에 동료와 접촉할 일이 없다. 여기에 코로나19 위험이 끝날 때까지 전국 모든 배송캠프의 탈의실과 흡연실을 잠정 폐쇄하는 등 직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했다.

/조효정 기자



모델들이 ‘워라벨 페어’를 알리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百, 건강한 집콕위한 ‘워라벨 페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생활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신세계백화점이 건강한 집콕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운동과 힐링 등 셀프 케어에 관심 많은 홈족들을 위해 7월 12일까지 ‘워라벨 페어’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홈레이닝을 위한 요가매트부터 여러 헬스기구 등을 백화점에서 직접 체험 후 구매할 수 있고, 신세계 단독 상품은 물론 SNS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도 만날 수 있다. 본점, 강남점, 센텀

시티 등 주요 점포 이벤트홀과 각종 본매장에서 다양한 브랜드 행사와 팝업을 진행한다.

본점에서는 7층 이벤트홀에 팝업을 마련해 다양한 운동기구와 마사지 용품들을 선보인다. 평소에 백화점에서는 볼 수 없던 런닝머신부터 실내용 바이크 등을 체험용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마의자, 마사지기, 피부관리기기 등 다양한 힐링 아이템도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조효정 기자

## GS25, 상반기 전기식 매출 82% 급증

GS리테일, 락라블라는 47% 증가

GS리테일이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전체 카테고리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19년 1~6월) 살펴본 결과 편의점 GS25가 82.1%, H&B(헬스앤뷰티)스토어 락라블라가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GS25에서 올해 상반기(‘20년 1~6월)에 가장 많이 판매된 건강식품은 ▲정관장)에브리타임밸런스핏(10ml) ▲경남)레모나산 ▲하루홍삼고려홍삼정(15g) ▲하루녹용고려홍삼정(10g) ▲일동 제약)마이니콜라겐구미 순이었다.

같은 기간 락라블라에서는 ▲레모나 결플라겐 레몬향(60포) ▲종근당건강

락토픽생유산균골드(50포) ▲레모나산 하트2g(70포)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120정) ▲레모나 생유산균9C(50포) 순으로 많이 판매됐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간식처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액상이나 젤리형 건강보조제 및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GS리테일은 2일 의학박사 여예스더와 손잡고 개발한 건강식품 ‘예스더 포뮬러’ 3종을 GS리테일의 전 유통채널인 GS25, GS THE FRESH, 락라블라, GS fresh에서 선보인다.

/조효정 기자

## 롯데칠성음료 2% 부족할때 자두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상큼달콤한 맛의 자두 과즙을 담은 신제품 ‘2% 부족할때 자두’를 1일 새롭게 선보였다. 2% 부족할때 자두는 ‘아쿠아’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1999년 출시되어 국내 미과즙음료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2% 부족할때’의 브랜드 이미지에 새로운 활력을 더했다. 미과즙 음료의 강점을 살려 물처럼 가볍게 갈증 해소도 할 수 있다.



/조효정 기자

## 이마트, 써큘레이터 매출 320% 급증

사상 첫 선풍기 판매 앞질러

냉방가전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체 냉방가전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5% 증가했다. 이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소비자들이 냉방가전 구매를 서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이마트에 따르면 써큘레이터는 6월 한 달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17.9%의 큰 폭으로 늘었다. 1~5월

97.3%의 매출성장률을 보인 데 이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마트 사상 처음으로 써큘레이터가 선풍기를 앞지르는 해로 남을 전망이다. 전체 선풍기 매출에서 써큘레이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6월 기준 27.3%에 불과했으나, 올 5~6월에는 30.5%P 증가한 57.8%를 기록 중이다.

써큘레이터가 일반 선풍기 대비 2~3배 이상 비싼 가격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로는 ▲편의성, ▲공간효율성 등이 꼽힌다.

/조효정 기자

# 삼성바이오에피스 'SB15' 글로벌 임상3상 시동 걸었다

2022년 2월까지 10개국서 연구  
의약품 간 유효성·안전성 등 비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안과질환 치료제 SB15(아일리아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임상3상에 본격 착수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SB15의 임상3상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글로벌 임상시험 정보 웹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를 통해 공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임상을 통해 2022년 2월까지 한국, 미국 등을 포함한 총 10개 국의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 446명을 대상으로 SB15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로서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아일리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75억4160만 달러(약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SB15의 성공적 개발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여,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 비비고 '왕교자' 상승세... 中 온라인사업 박차

지난 4·5월 시장점유율 1위  
현지법인 온라인 사업팀 신설



징동닷컴 비비고 왕교자 온라인 단독 페이지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중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왕교자'가 중국 2위 온라인 상거래 업체 징동닷컴의 교자/완탕 카테고리에서 지난 4월(31%)과 5월(33%)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열린 상반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대전 '618 행사'에서도 비비고 왕교자, 비비고 국물요리, 햇반컵반 등 주요 제품 매출이 전년비 6배 이상 신장하는 등 온라인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는 작년 중국법인에 '온라인 사업팀'이 신설되면서 가속화됐다. CJ제일제당은 중국의 유통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시장 트렌드를 먼저 읽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 부서를 만들었다. 또한 2011년 인수해 현재 중국 온라인쇼핑몰 1위 티몰 즉식상(당면소스류) 카테고리 시장점

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지상위와 정보를 공유하며 역량을 축적했다.

CJ제일제당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인 지도 확보 노력도 주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지에 만두를 즐겨 먹는 중국 식문화에 맞춰 '大有不同(모든 것이 다르다)'는 콘셉트로 '비비고 왕교자'의 특징점을 알리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18개월만에 온라인 채널에서 매출이 13배 성장했으며, '비비고왕교자' 뿐 아니라 비비고 국물요리, 햇반컵반, 떡볶이 등 HMR 제품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한미약품 '로수젯', MSD 손잡고 멕시코 상륙

복합신약 원외처방 중 매출 가장 높아



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신약으로, 간과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합성 및 흡수를 이중으로 억제해 혈중 저밀도지질단백질-콜레스테롤(LDL-C)을 효과적으로 낮춘다.

한미약품과 MSD의 파트너십은 이번이 두번째다. 양사는 2009년 고혈압 치료 복합제 아모달탄을 '코자XQ'라는 브랜드로 5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세경 기자

한미약품 '로수젯(사진)'이 MSD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한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으로,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복합신약 중 가장 많은 원외처방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전문의약품이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인 MSD가 멕시코 의약품국으로부터 로수젯 10/5mg, 10/10mg, 10/20mg 세 가지 용량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한미약품과 MSD는 2016년 로수젯의 23개 국 글로벌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수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두 가지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

# 유한양행,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개발나서

# 신약 글로벌 리더 발판 마련

지아이이노베이션과 공동 연구  
계약금 200억 포함... 총 1.4조  
알레르기 4가지 핵심 질환 표적

유한양행이 차세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유한양행은 지아이이노베이션과 1일 알레르기 질환 치료 후보물질인 GI-301 융합단백질에 대한 공동연구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200억원을 포함, 총 1조4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전세계(일본 제외) GI-301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획득했으며, GI-301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이정희 유한양행 대표(왼쪽)가 1일 남수연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와 알레르기 질환 치료 후보물질 공동연구 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유발물질에 노출 시 생성되는 면역글로불린 E(IgE)가 비만세포 또는 호염구와 결합하면서 히스타민 등을 분비하며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GI-301은 이중융합단백질신약으로 현재 연매출 4조를 기록하고 있는 IgE 항체 의약품 줄레어 대비 월등히 우수한 IgE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전임상 원숭이 실험에서도 확인했다.

또 GI-301은 기존 IgE 항체기반의

약품의 대표 부작용인 아낙필락시스 쇼크(중증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FcγR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줄레어나 개발중인 여러 항-IgE 항체 신약들이 혈중 IgE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는 아토피 환자의 임상에서 약효 입증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약품대비 높은 IgE 억제효과 및 안전성을 보이는 GI-301이 아토피, 만성염증 등의 다양한 알레르기성 질환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은 "지아이이노베이션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천식, 만성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음식물 알레르기의 4가지 핵심 질환을 모두 표적으로 삼는 차세대 알레르기 치료제를 개발하여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언택트 진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센서

# 스마트병원 솔루션 구축... 의료혁신 '첫발'

KT-아산병원-현대로보틱스 협약  
병원내 비대면 실시간 케어 개발  
물품·자산 관리 로봇 기반 자동화

KT는 서울아산병원, 현대로보틱스와 스마트병원 솔루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중증환자 입원이 많은 서울 아산병원은 외래진료와 입원환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 병원 솔루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3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영상 솔루션을 통해 선별 진료소 방문환자와 병원 진료실을 연결하는 원내 감염 관리 언택트 진료와 웨어러블 디바이



KT AI·DX융합사업부문 전홍범 부사장(왼쪽부터),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병원장, 현대로보틱스 서유성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스·IoT센서·의료진용 영상솔루션으로 입원환자 위치와 건강상태를 파악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실시간 케어(스마트환자관리)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병원 내 물품·자산 관리를 로봇기반

으로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 관리 솔루션 개발도 나선다.

KT는 ICT 역량을 활용한 의료 DX 플랫폼과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현대로보틱스는 로봇으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아모레퍼시픽, 11번가와 디지털 커머스 확대

11번가 고객 구매 데이터 분석 활용

아모레퍼시픽이 커머스포털 11번가와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JBP)을 맺고 디지털 커머스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안세홍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이상호 11번가 사장이 각 사 대표로 참가한 '상호협력을 위한 JBP 협약식'이 6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11번가의 고객 구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아모레퍼시픽 주요 브랜드의 캠페인 기획전을 고도화하고, 11번가 '오늘 발송' 서



'아모레퍼시픽과 11번가의 상호협력을 위한 JBP 협약식'에 참가한 아모레퍼시픽 안세홍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11번가 이상호 사장

비스 확대 및 VIP 전문관 참여 등을 통한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더불어 다양한 차원의 전략적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 보령제약

# 헬스케어 투자펀드에 240억

보령제약이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펀드에 24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보령제약이 투자를 결정한 하얀(Hayan I, L.P.)은 미국 현지법인 하얀 헬스네트웍스에서 설립, 운영하는 CV C(기업 벤처 캐피탈) 펀드로 미국 내 초기단계 헬스케어기업 및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를 진행 할 예정이다.

보령제약은 펀드 참여를 통해 글로벌 진출 및 성장 모멘텀 마련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파이프라인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 포스코, '철강산업 리더십' 최우수 기업 선정

# 우리 동네 집값은?

## 어려운 환경서 양호한 실적·미래먹거리 발굴

포스코가 30일 발표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플라츠의 '글로벌 메탈 어워즈'에서 철강산업 리더십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초 런던에서 글로벌 금속산업 관련 기업과 원료설비공급사, 원자재트레이딩, 주요인르사 등 10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던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다.

글로벌 플라츠는 철강,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대 정보분석 기관으로, 신용평가기관 S&P Ratings, S&P500 지수를 운영하는 Dow Jones Indices 등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 S&P 글로벌의 자회사다.

플라츠는 2013년부터 '글로벌 메탈 어워



즈'를 통해 전세계 철강을 포함한 금속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철강산업 리더십, 알루미늄산업 리더십, 원자재 리더십, 기술 혁신, 사회공헌 등15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글로벌 메탈 어워즈는 타기업 및 기관 추천 또는 자체 지원을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부문의 최종 후보를 선정 후, 철강, 원자재 트레이딩, 시장분석 기관의 전직 CEO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포스코는 지난 5월 철강산업 리더십, 사회공헌, 기술혁신 등 3개 부문에 걸쳐 최종 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이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철강 시장 악화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사 대비 양호한 경영 실적을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철강산업 리더십' 부문을 수상했다.

포스코의 이번 글로벌 메탈 어워즈 수상은 지난 2018년에 이은 두번째로, 이 상을 받은 국내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플라츠는 포스코가 월드톱프리미엄 제품 1000만 판매 및 원가절감 활동인 CI(Cost Innovation)2020추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이차전지소재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쓰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기자 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우리 동네 집값은 어떻게 될까?"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을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었다. 정부는 두 달에 한 번씩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데 집값은 오르고 있으니 이상할 만도 하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됐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온 국민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며 분석하고 온라인상에서 투자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고양·군포·안산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대전·청주 등 지방 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구리, 군포 등 17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강도 규제가 과연 집값을 잡고 있는 지의 문이다. 12·16대책, 6·17대책 등

급격한 규제가 나올 때 마다 시장은 잠시 관망세를 보이는 등 소강 상태를 보였을 뿐 이내 활로를 찾아 상승세로 이어졌다. 부동산 정책에도 내성이 생기는 듯 하다.

두더지잡기식 대책 마련도 문제점 중 하나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황급히 이들 지역도 모니터링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터지면 막는 식의 뒷북 정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고 있다. 국가 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2번째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김 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과 전쟁을 치렀다.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총선도 포기한 그가 성공한 국토부 장관으로 남길 바란다.

그렇다면 잠시나마 규제가 아닌 자유로운 시장 흐름에 맡겨 보는 것은 어떨까? 계속되는 규제책은 국민을 지치게 할 뿐이다. /ywj964@

# SKT, 한국서비스품질지수 21년 연속 1위

## ICT 접목·고객맞춤형 서비스

SK텔레콤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이동통신부문 2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2000년 KS-SQI 조사 시작 이래 21년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한 경우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KS-SQI는 국내 서비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해 계량화한 지표다.

SK텔레콤은 올해 조사에서 서비스품질 지수 점수가 75.4점으로 2019년 대비 0.6점이 상승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이

격화되면서 업계 최초로 콜센터에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24시간 고객의 문자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AI상담사 '채티'(챗봇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운영 중이다.

고객상담에 ICT 신기술을 접목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유통망 등에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로 이어져 이번 KS-SQI 조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7월 2일 (음 5월 12일) http://www.saju4000.com

Horoscope section with zodiac signs and descriptions. Includes icons for 쥐 (Rat), 소 (Ox), 호랑이 (Tiger), 토끼 (Rabbit), 용 (Dragon), 뱀 (Snake), 말 (Horse), 양 (Goat), 원숭이 (Monkey), 닭 (Chicken), 개 (Dog), 돼지 (Pig).



# 김상희의 4계

## 인정욕구 강한 사주

성격을 보다 보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고 무뎠거나 메마른 사람도 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도 많다. 무뎠거나 메마른 사람은 사람이 진국이네 라는 소릴 듣기도 한다. 한 사람의 성격도 상황 따라 나타나는 것이니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이러한 점을 살핀다면 실망을 줄일 수 있다. 번덕이 심한 경우 주변을 괴롭하게 하고 게다가 일주에 백호 살이나 괴강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고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도 백호가 들어 있어 막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데 둘째가라 하면 서운할 지경인 것이다. 게다가 자화자찬을 즐긴다.

최근에 상담을 온 어느 아가씨는 상담의 내용을 들어 보니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회사를 옮길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괴강 년주에 을미(乙未) 일주였는데 지지의 신살(神殺)을 보아 하니 재살과 백호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 보면 이해심 많고 사근사근해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주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또한 강한 사람임을 감출 수가 없다.

스스로 매우 여러고 착하다고 여긴다. 실제 여러며 인정욕구도 강한테 좋은 소릴 들으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문제인 것으로 여긴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은 커녕 오히려 원망을 하더라는 얘기가. 이런 경우를 두고 인덕이 박하다는 얘길 한다. 자신이 해줬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애와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를 해주고도 셋을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365 section. Includes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logo, '문제풀이: 문제출제: 손호성', and several 9x9 Sudoku grids with solutions.

metro 메트로미디어 logo and address information: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44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2호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도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FFTK 2020 인터뷰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 “로봇기술은 이용자 중심일 때 의미 인력 대체 아닌 새로운 시너지 창출”



“로봇 기술은 이용자 중심으로 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느끼기에 로봇이 폭력적이거나 불편하다면 잘못된 사용처인 것이지요.”

로봇 카페를 선보이며 요식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는 푸드테크 속 로봇의 역할을 이같이 정리했다. 라운지랩이 운영하는 카페, 라운지엑스에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준다.

로봇 기술의 발전 뒤에는 어김없이 걱정이 뒤따랐다.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빼앗고, 로봇이 대체한 만큼의 인력은 도태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다.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에 참석한 황 대표는 단호하게 이를 부인했다. 인간과 로봇은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며, 인간과 로봇의 협업은 오히려 훌륭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게 로봇 바리스타를 개발한 그의 믿음이다.

**- 무인 매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상황에 맞는 무인 자동화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앞으로 인간과 적절한 조화를 이룬 무인화 매장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에 단순히 기계만 놓는다면 자판기 커피와 차이가 없다. 무인매장도 역시 환불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결국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무조건적인 기계화는 비효율적이다. 아**

직까지 로봇 기술은 단순 반복 행동만 가능한 수준이며, 이 기술을 모든 곳에 적용하려면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 로봇카페를 시작한 이유는.**  
“기술을 통해 F&B 사업 속 인력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F&B 사업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인력을 갈아 넣는 행태가 나타난다. 비용이 나가는 곳은 식자재, 공간비, 인건비 등으로 한정적이지만 식자재에서 비용을 줄이면 품질이 확연히 나빠진다. 공간 역시 상권, 인테리어 등을 위해서는 줄일 방법이 많지 않다. 결국 인건비로 쓰이는 인력들이 허사당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조금 더 쉽게 일할 수 있을 수 없을 까’라는 고민으로 로봇 카페를 시작했다.”

**- 다양한 업종 중에서 왜 카페였나.**  
“인간과 로봇이 잘 융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다. 인간과 로봇이 각각 잘할 수 있는 분야 구분은 앞으로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가 잘 해낼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것이다. 카페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일정한 맛을 내는 건 로봇이 잘한다. 그러나 매장 내 청소, 손님 응대 등은 로봇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올 수 없다. 커피라는 건 단순 미각의 자극이 아니다. 공간에서 나오는 음악, 바리스타의 표정,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교감 등 맛을 좌우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로봇 바리스타는 균

일하게 커피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접목한 것이다.”

**- 로봇 분야 엔지니어들이 실리콘밸리 등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은 없었나.**

“뛰어난 인재들이 원하는 게 단순히 높은 연봉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력들이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서 의미 있게 쓰이는 것 역시 회사가 줄 수 있는 가치 중 하나다. 자체 개발한 기술이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쉽게도 회사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연봉을 높게 지급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뛰어난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인간·로봇 융합분야로 카페 선택  
각각 잘할 수 있는 분야 달라  
로봇바리스타 통해 커피맛 유지**

**고객 표정 분석 기술 개발 등  
많은 정보바탕 새로운 경험 제공**

**-카페에 적용한 로봇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무엇인지.**

“로봇의 도입을 통해 또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려 한다. 카페에서 기계로 인한 자동화 사례는 이미 존재한 영역이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도입되면서 커피 추출량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라운지랩은 로봇의 도입

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다. 로봇이 가진 무한대에 가까운 기억력을 활용하려 한다. 최근 온라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이미 개인화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구매 패턴, 관심 분야를 분석해 소비자들에 자동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선 기술 부족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현되지 못했다. 온라인에 익숙해진 세대가 개인화를 이루지 못한 오프라인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로봇을 통해 커피를 주문한다면 고객의 취향을 기억할 수 있다. 언제 먹은 커피가 맛있었다고 평가한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방문 시에 재현해낼 수 있다. 더불어 단골로 인식한 손님이라면 특별한 할인가에 제공할 수도 있다. 고객들의 표정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많은 정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 모든 오프라인 F&B 매장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카페부터 시작한 것은 회사가 생각하는 비전을 먼저 실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플랫폼으로 시작했다면 오프라인 매장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급하는 회사의 입맛에 맞춰서 발전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A안이 옳다고 판단하더

라도 수주 회사가 B안이 더 낫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또 플랫폼 시스템과 매장 현장의 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 시스템부터 구축하려 했다면 정확한 정보 없이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결국 현장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카페 운영을 시작한 셈이다.”

**- 향후 라운지랩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

“고객들의 반응을 수집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 먼저 로봇 바리스타 ‘바리스’를 3.0 버전을 공개하면서 스크린을 추가할 예정이다. 손님들에게는 바리스가 누구의 커피를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통해 카페를 찾은 고객들과의 교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일정 확률로 추가 서비스 제공하는 ‘랜덤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당일 가게에 찾는 손님 중 무작위로 초콜릿을 제공한다면, 추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제공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로봇이 제공함으로써 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지점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또 사람과의 협업 분야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로봇 바리스타와 협업하는 인간 바리스타의 역할을 늘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 한다. 기계 내 조절을 통해 개인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 중이다.”

/이영석·박태홍기자 ysl@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 “빠빠코송에 리액션 보여주세요” 아워홈,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 수상

**롯데푸드 ‘빠빠콘테스트 시즌2’  
유저에 가장 많은 선택받은 BJ 우승**

롯데푸드는 아프리카TV와 7월 1일~8월 28일 약 두 달 동안 빠빠코 BJ리액션 콘테스트 ‘빠빠콘테스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빠빠코’는 진한 초콜릿 맛이 특징인 롯데푸드의 대표 펜슬형 아이스크림이다. 특히 ‘빠빠라빠빠~ 빠빠리 빠빠코~’라는 재미있는 노랫말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CM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열리는 ‘빠빠콘테스트’는 대중에게 친숙한 빠빠코의 CM송에 맞춰 재미있는 리액션을 보여준 BJ(Broadcasting Jockey, 1인 미디어 진행자)들 중 유저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BJ가 우승하는 콘테스트다.



빠빠콘테스트 시즌2 포스터. /롯데푸드

‘리액션’은 아프리카TV의 BJ와 유저가 서로 소통하는 아프리카TV의 대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다. 특히 이번 ‘빠빠콘테스트 시즌2’에 참여하는 BJ들은 빠빠코 CM송을 트로트, 힙합, 아이돌 버전으로 만드는 등 다채롭게 재해석해 유저들에게 다양한 매력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이번 ‘빠빠콘테스트 시즌2’의 참가는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용기 대체 HMR 식품 파우치  
친환경·편의성 부문서 높은 평가**

아워홈은 자체 개발한 ‘용기를 대체하는 HMR 식품 파우치’가 세계포장기구에서 선정하는 ‘2020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월드스타 패키징 어워드’는 패키징 기술 발전을 위해 세계포장기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회로 한 해 동안 개발된 획기적인 포장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포장 기술 관련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 시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HMR 식품 파우치’는 아워홈이 지난해 자체 개발한 HMR(가정식 대체식품) 전용 포장 용기로, 친환경성과 사용 편의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워홈이 자체 개발한 ‘HMR 식품 파우치’가 적용된 연화식 양념육 2종. /아워홈

지난해에도 HMR 식품 파우치는 국내 최고 권위 패키징 산업 시상식인 ‘제13회 미래패키징 신기술 정부포상’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상을 수상한 바 있다.

HMR 식품 파우치는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는 용기형, 파우치형 패키징의 장점을 모두 모은 하이브리드 친환경 포장 용기다.

/원은미 기자

## 웅진식품 하늘보리 보리요정 4행시 이벤트

웅진식품이 하늘보리 김고은 스페셜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4행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웅진식품은 최근 하늘보리 광고 모델인 배우 김고은을 제품 라벨에 담은 ‘하늘보리 김고은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였다.

여름 시즌 약 3개월 간 김고은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이며, 언제 어디서나 마음까지 시원한 하늘보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웅진식품은 하늘보리 김고은 스페셜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오는 1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늘보리 모델 김고은의 애칭인 ‘보리요정’으로 4행시를 만들어 댓글을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원은미 기자



SFIDA COLLECTION CHRONOGRAPH WITH TACHYMETER SCALE  
 STAINLESS STEEL WITH IP GUN TREATMENT - WR 10 ATM



MASERATI



ALMANAC 070-7840-1715  
 www.almanac.co.kr

# 전남, '블루 농수산' 탄력... 1151억 확보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전남, 상반기 공모사업 14개 뽑혀  
4개는 100억 이상 대형 프로젝트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올 상반기 공모사업에서 14개 사업이 선정돼 115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선정사업은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 구축 350억 원 ▲2020 농촌협약 시범도입 300억 원 ▲2021 농촌 신활력 플러스 196억 원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05억 원 ▲2021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87억 원 ▲2020년 GAP 시



전남도청 전경

설보완 사업 4억원 등이다.

100억원 이상 국비가 투입될 국가 대형프로젝트로 4개 사업이나 선정돼 '전남 블루 농수산' 비전 달성을 한 단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특히 최근 장성 삼계면에 유치 확정된 '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는 전남도가 범국가적인 아열대 작물 재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 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결과로 평가된다.

실증센터는 고품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농업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구, 기초생활거점조성 지구 등 총 3개 분야 1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비 385억 원,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도 3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외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17억 원을 비롯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1억5000만원, 라이스랩 운영사업 1억원 등 올해 국비 118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침체된 농업과 농촌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전남도 농업분야의 국비예산은 6029억원으로 국비 의존률이 68.4%에 달한다.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안동시 SW 미래채움사업 공모 선정

안동시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소외계층 격차 해소와 지역 소프트웨어(SW)교육 자생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2020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35억 원을 포함 총 70억 원을 투입해 안동시, 포함시에 ▲SW체험교육센터 구축, ▲SW전문강사 양성 ▲초·중등학생 대상 SW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한다.

'2020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경상북도도와 안동시, 포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다. 사업 수행을 위해 포함시를 중심으로 환동해SW미래채움센터, 안동시를 중심으로 백두대간SW미래채움센터(로봇융합연구원농업자동화센터 내)를 구축해 SW체험교육장, 강사양성 교육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 영양군 농민 울리는 농약사



**기지 수첩**  
김 태 우  
(지방자치부)

농약사는 농번기 때 농민의 단골 가게다. 농업용 비닐을 포함하여 농약 등 많은 제품을 농약사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농업용 자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농민은 제품의 정보를 농약사로부터 얻으며 농약사가 말하는 내용을 대부분 신뢰하게 된다.

"진딧물에 쓰는 농약 주세요." "고추 밭에 깔 비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농약사는 적절한 제품을 농민에게 설명하고 판매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불량제품, 혹은 검증과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O농약마트에서 판매한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비닐)을 실제로 사용해 보니 예전에 사용했던 비닐과 많이 달랐다. 비닐의 강도나 질감 정도, 두께 등에 차이가 있어서 모니터링 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제품은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임이 확인됐다. 농업용 폴리에틸렌필름(비닐)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단체표준인증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고 생산 및 판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농약사를 믿고 거래하는 농민의 심리를 이용, 제품인증을 받지 않은 비닐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불편조라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제품은 햇빛에 잘 분해 돼 비닐가루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공기 중에도 섞여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양질의 농산물 생산은 농민 모두의 바람이요 꿈이다. 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농업용 비닐을 포함한 농자재를 판매하는 것은 농민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주지하고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취급해야 한다.

또한 일부 농약사에서는 제품의 현금결제구입액과 카드결제구입액의 가격을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카드결제 시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이런 이중 잣대 판매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해당 농약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무감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농민의 신뢰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영양(경북)=ktu3987@



파도에 몸을 맡긴 채

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앞바다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축전' 내일 안동 도산서원서 개막

'2020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축전' 개막 행사가 오는 3일 오후 3시30분 안동 도산서원에서 열린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의서원동합보존관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도산, 병산, 소수, 남계, 옥산, 필암, 도동, 무성, 돈암서원)에서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로 7월 한 달간 다채롭게 진행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 예천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예천군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수도관리단을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7월에 신청을 하면 8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 전남, 中企에 경영안정자금 1400억 투입

전년비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전남도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도내 중소기업에 긴급·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을 1일부터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자금은 기존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인 제조업 및 제조·지식서비스업에다, 병·의원, 여행·숙박업, 여객·화물운송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 취급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지원 대상이며 기업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매출액 50% 이내)하기로 했다.

우천식 진흥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악화 및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북한도 발사태 등으로 국내외 경제·정치환경이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 직접 피해기업을 포함한 모든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위기를 무난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흥원 무안 본원인 순천 동부출장소에서 동시에 긴급 및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 전남교육청 농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대상 농업 교육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 도내 농업계열 특성화고 2학년 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창의융합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미래 Young農人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4일과 8월10일~8월14일 총 74시간 동안 이뤄지며, 지난 6월 27일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에서 오리엔

테이션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능숙달 교육을 탈피해 전문 농업 실무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진행된다. 농업환경서비스, 농업생산시설제어와 농공융용, 융복합 농기업, 농축산물 가공 분야로 나눠 학생들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을숙도 문화 여행하면 기념품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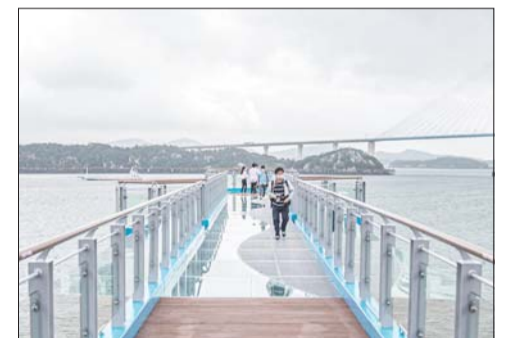
부산시가 을숙도와 낙동강하구를 알리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문화회관, 한국수산업자협회 부산권지사, 낙동강문화관 등 4개 기관과 함께 '을숙도 문화·생태여행 완주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을숙도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조각공원, 낙동강하구둑전망대 등 생태문화 관련지 8곳을 방문한 뒤 생태여행여권에 2개 이

상 기관의 인증도장을 받으면 도장 개수에 따라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체험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을숙도는 '새가 많고 물이 맑다'는 의미를 지닌 모래섬으로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이기도 하다.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인근에 부산현대미술관 등이 개관하며 문화와 생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대반동 앞바다 스카이워크

/목포시

## 목포시 대반동 앞바다 스카이워크 개방

목포 대반동 앞바다에 스카이워크가 들어섰다. 목포시는 대반동 유달유원지 앞바다에 총 사업비 14억원(국비 7억, 시비 7억)을 들여 조성해온 스카이워크 포토존 사업이 마무리되어 7월부터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스카이워크는 길이 54m, 높이 15m로, 바닥의 3분의2 이상이 안전한 투명 강화유리 및 스틸발판으로 제작됐다. 상공 15미터에서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스틸감을 제공하면서도, 입장객들의 안정감을 위해 난간 높이는 140cm로 기준 높이보다 20cm 높게 설계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산업] 삼성전자  
스토리지 용량  
한계 극복  
08



Life

[라이프]  
글로벌·젊은층 '매력'  
식품업계  
e스포츠에 빠지다  
니



# 박원순 “中企는 산업의 중추... 글로벌 진출 적극 도울 것”

중기중앙회-박원순 시장 정책간담회  
김기문 “돈맥경화 심화... 대책 필요”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 설치 지원  
조합추천제로 소기업 구매확대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모든 산업·고용의 핵심이자 중추”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사라지면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생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쟁력 있거나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특별히 중요한 만큼 이들을 위해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막 불거졌던 지난 3월 초에도 중소기업계와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5번째부터) 박 시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박시장에게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해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 모두에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건의해주신 안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이를 다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했다”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지난 30일 시의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휴업보상금 지원 등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 잊지 않고 이번 서울시 3차 추경안에 공제기금 이차보전, PL보험료 지원예산을 반영해 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코로나19 사태

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절벽을 경험하고, 유동성이 관철았던 기업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보증 확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직접대출 확대 등 중소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현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을 써달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소기업계는 박시장에게 서울 상암동 DMC센터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 설치 지원, 협동조

합 추천제도 등을 활용한 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 브랜드 마케팅부터 진출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인구가 5000만명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콜롬비아에 갔더니 대한민국 ‘K-POP’이 정말 유명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수도인 보고타에서 열렸던 경연대회에는 10~20대 약 3000명이 몰려 야단법석이었다.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의류, 화장품, 주얼리 등의 상품을 갖다 팔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그런데 남미나 베트남 등에서 중국기업들이 마치 한국 기업처럼, 한국 사람인척하며 제품을 파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외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현지 유통채인과 잘 연결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손질해야

진흥지구 내 수혜 받은 기업 극소수  
직접 도움 되는 프로그램 모색해야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첨단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진흥지구 내 업체 10곳 중 8곳은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현재 산업환경이 악화하거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지구는 특정 지역단위의 산업집적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시내 총 12개소를 진흥지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로 이관되거나 사업 보류 중이다. 나머지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 지구 권장업종 사업체 7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흥지구 산업환경 관련 설문조사에서 14.2%는 악화, 65.8%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개선됐다

는 20%였다.

진흥지구는 산업활성화 지원과 도시계획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제공을 결합한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이지만 수혜를 받은 기업은 극소수였다.

오은주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권장업종 사업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부담을 통한 자금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n

## 세종대로 보행거리... 서울청년센터... 하반기 서울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보행거리 조성·하남선 개통 등 담야

올해 연말에는 광화문사거리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1.5km 구간이 ‘서울 대표 보행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12월에는 1.5km 세종대로 구간(광화문사거리~서울시청~송례문~서울역)이 ‘서울대표 보행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현행 9~12차로를 7~9차로로 축소하고 보행공간 확충, 전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 공유차량 주차공간 설치, 세종대로 가로숲 조성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도심에서 경기하남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도 12월에 전 구간이 개통된다. 신설되는 역은 강일·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 5개역이다.

연내 노후 지하철역 5개소(종로5가·동대문·신설동·영등포시장·군자역)가 리모델링을 거쳐 수준 높은 ‘문화예술철도’로 바뀐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창업·미디어 관련 지원시설들이 대거 문을 연다. 8월에는 청년들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상담 컨설팅,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개관한다.

/김현정 기자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내년 착공 ‘청신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경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시

매년 3차례 개최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이 총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심사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미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고양시의 산하기관 출자 및 정책지원금을 1044억원 가량 투입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

이번 통과로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완료돼 실시계획인가만 남은 상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7월 2일 (木)  
음력 : 5월 12일

수도권 날씨  
29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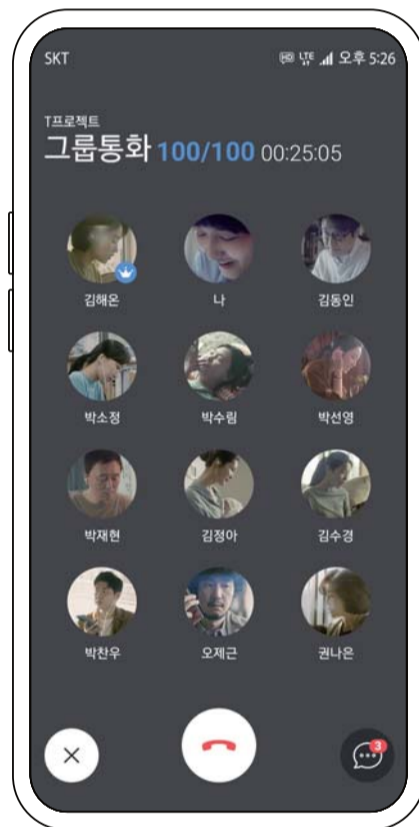
지역별 날씨:

- 연천 17/29
- 동두천 18/29
- 백령도 18/24
- 파주 18/28
- 가평 17/29
- 서울 20/29
- 양평 19/29
- 인천 20/27
- 수원 20/28
- 용인 20/28
- 평택 18/2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100명이 한 자리에  
아니, 한 통화에 모입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한 회의실에 모이지 않아도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  
100명이 참여하는 회의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까지  T그룹통화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 telecom



지금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T그룹통화'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T전화' 앱에서도 30명까지 그룹통화가 가능합니다.